

HARVEST TIMES

2026년 4월 1일 제 19권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HARVEST TIMES

HARVEST UNIVERSITY

2026년 4월 Vol. 19

CONTENTS

- 03 품성계발 신학 발행인 편지
- 05 목회 대학원 원장 윤석일 박사
- 21 신학 대학원 소개
- 23. 인도와 네팔 선교여행 기도요청
- 25 가족성장 상담대학원 소개
- 27 하나님은 목표가 아니라 ‘이름’을 먼저 세우신다
- 37. 치앙마이 센터 안내
- 41 기도는 ‘이미 응답 된 감정’에서만 작동한다.
- 48 기독교상담 심리 대학원 소개
- 52 하베스트 캠퍼스 - 태안, 제주, 동경, 나갈랜드, 치앙마이
- 54 설교는 강단에서 끝나지 않는다.
- 67 재정의 기름부음은 ‘설계된 흐름’ 위에 임한다
- 80 문화예술 대학원 소개
- 82 선교 대학원 소개
- 87 라마단과 사순절이 겹친 시대에 던지는 무거운 화두
- 95 나는 부자인가? 거룩한 부자 체크리스트!
- 116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 117 북 리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품성 계발의 신학
선교 리더를 살리는 길

제33회 세계선교 컨퍼런스 개최 메시지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대표
하베스트 대학교 총장
이성상 태국 선교사

오늘날 선교 현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피로, 분노, 관계 갈등, 억울함, 그리고 결과에 대한 압박**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역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지만, 때로는 그 사역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선교 리더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쉽은 명예를 벗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는 것이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을 약속하신 뒤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흔히 십을 “짐이 없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을 주시면서도 “명예”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쉽은 명예를 벗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는 데서 옵니다.**

명예는 방향과 속도를 맞추는 도구입니다.

내 방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향을 배우는 것

내 속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속도를 배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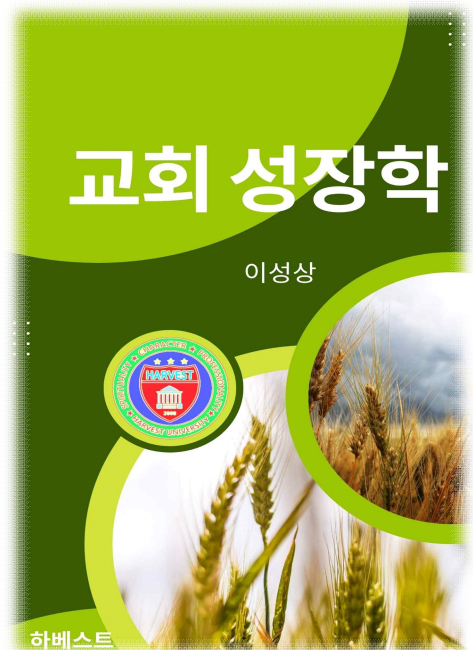
내 통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명예입니다.

결국 십은 업무량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인 온유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인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품성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소개하십니다. 온유는 단순히 “착한 성격”이 아닙니다. 온유는 갈등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조용한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기 보호나 자기 증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한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품성 리더십은 사람을 눌러 결과를 만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오늘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압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온유한 권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인 겸손

예수님의 품성인 겸손은 '내 멍에'에서 '그리스도의 멍에'로 옮겨 가는 훈련이다

예수님의 온유는 단지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께 주도권을 드린 삶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요한복음 5:30)

겸손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방식을 내려놓는 영적 결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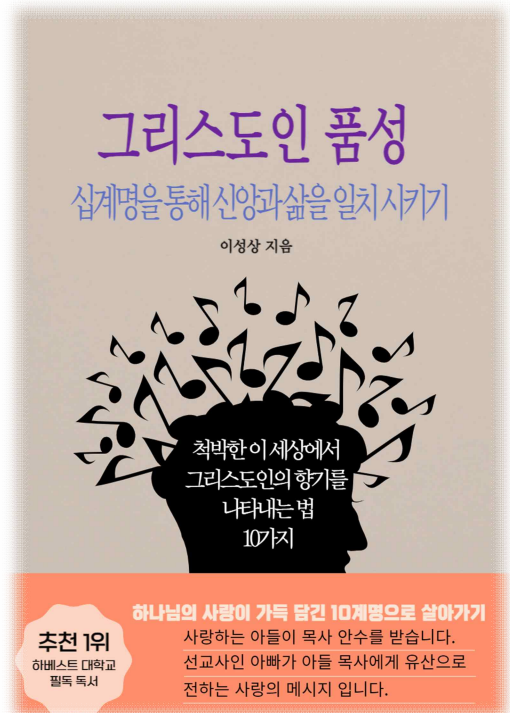
-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
- 내 통제보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권력의 절제, 겸손은 주도권의 이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리더는 사람을 소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됩니다.

크리스천 리더의 분노

분노는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경고등이다

선교 현장에서 분노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팀 갈등, 일정, 재정, 오해, 기대 불일치 속에서 우리 안의 분노는 쉽게 올라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엡 4:26)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 (엡 4:31)

분노 자체가 즉시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붙들면 죄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정죄의 낙인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경고등으로 읽어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 내가 지금 통제하려는 영역은 무엇인가?
- 나는 어디에서 인정과 존중을 갈망하고 있는가?
- 내 방식이 언제부터 절대 기준이 되었는가?

이 질문은 주도권을 다시 예수님께 돌리기 위한 회개의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와 무게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더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 항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명예를 배우라

오늘 선교 현장에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성과보다 더 건강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람을 눌러 결과를 만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 온유로 힘을 다루고
- 겸손으로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 십자가로 짐을 가볍게 하고
- 섬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목회 대학원

신학사 (B.Th), 목회학석사(M.Div.), 목회학박사(D.Min.),
철학박사(Ph.D in Ministry) 및 통합과정



M-story 발행인
한국순례길 충남지부 이사장
하베스트대학교 목회대학원 원장
윤석일 박사

보빙사(報聘使)와 고종의 선교 윤희 배경사

조선은 1882년 5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해 1883년 5월에 주한 공사 루시어스 푸트가 입국하여 주한 미국 공사로 부임하고 한성부에 주한미국공사관을 개설 하였다. 이에 고종은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후 푸트가 조선 주재 “미국 초대공사로 부임하자 이에 답례 형식으로 보빙사절단을 구성하여 조선의 최초 미국을 답방하고 돌아오게 한다.”¹⁾

1. 배경사

조선은 “1866년 3월 제너럴셔먼호 사건과”²⁾ “1871년에 신미양요”³⁾를 겪

1) [온라인 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보빙사> 2024년 10월 18일 접속

2) 제너럴 셔먼호- 1866년 9월 5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최초 순교자 토마스 목사가 통역으로

었다. 그러나 조선은 언제까지 쇄국 정책을 펼칠 수는 없었다. 1875년에 “일본이 일으킨 운양호”⁴⁾ 사건으로 1876년에 불공정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같은 해부터 수신사를 파견하였고 1880년 “제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은 황헌준의 책을 가지고 왔다.”⁵⁾ 이 책의 내용은 러시아 제국의 야욕에 맞서 일본 및 서방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조정 대신들에게 영향을 주어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882년 5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로 1883년 주한 공사 루시어스 푸트가 주한 미공사관을 열고 미국공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1882년 7월에 발생한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세력을 견제한다는 뜻과 조미수호조약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1883년 7월 정사(正使) (전권대신)에 민영익, 부사(副使)(부대신)에 홍영식, 종사관(서기관)은 서광범, 수행원은 변수, 유길준 고영철 현광택 최경식 중국 통역 1명 개화파 인사들을 대동시킨 보빙사(견미 사절단)”⁶⁾을 파견하였다.

2. 조선에서 일본 - 미국으로 일정

1883년 7월 14일 푸트는 당국에 연락해 아시아 함대의 제독인 피어스 크로스비(Peirce Crosby)를 통해 모노캐시호(SS Monocacy)로 보빙사 일행을 제물포에서 나가사키까지 수송하기로 했다. 일본인 통역관 미야오카 쓰네지로와 함께 배에 올랐다. 7월 21일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이후 요코하마에

함께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에 이르러 밀물로 모래톱에 걸리고 배는 불타고 승선자는 죽음을 당하는 사건

- 3) 신미양요- 1871년 6월 1일~11일 사이에 발생한 조선과 미국간 다툼이다.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의 책임과 통상 교섭을 명분으로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강화 해협을 거슬러 올라왔고 조선 측의 거부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교전이 일어났다. 3일간 교전 결과 조선은 광성보가 함락되고 순무중군 이재연을 비롯한 수비 병력 대다수가 사망하였다. 미 해군은 20일간 통상을 요구하며 주둔하였으나 조선의 완강한 쇄국 정책으로 아무런 협상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조선은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강화하였다.
- 4) 운요호- 1875년 9월 20일 일어난 운요호 사건은 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 군함 운요호가 불법으로 강화도에 들어와 측량을 구실로 조선 정부의 동태를 살피다, 조선 수비대와 전투를 벌인 사건이다.
- 5) 함재봉 [한국사람만들기11] 경기도 H프레스 2023년 황헌준의 책은 제2차 일본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주일청국공사 하여장과 참참관 황헌준과 여러 차례 만나 당시 국제정세와 조선이 처한 위치를 조선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김홍집에게 주니 그것이 황헌준이 쓴 조선책략(朝鮮策略)이다. 이은선[한국근대화와 기독교역할]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P67
- 6) 오영교,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정동 삼문출판사, 2011. p. 45.

도착해 도쿄에 머물렀다. 이 때에 주일 미국 공사의 주선으로 미국인 퍼시벌 로런스 로웰(Percival Lawrence Lowell)이 서기관 겸 고문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앞줄 왼쪽부터-로웰, 흥영식, 민영익, 서광범, 우리탕
 뒷줄 왼쪽부터-현홍택,일어통역,유길준, 최경식,고영철 변수

“로웰은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후 1883년부터 일본에 체류 중이었다. 그는 1883년 8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보빙사가 미국에 체류하는 3개월 내내 안내를 맡는다.”⁷⁾ 보빙사는 8월 11일 증기선 아라빅호(Arabic)로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9월 2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보빙사는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로웰의 안내를 받았고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고종은 로웰을 조선으로 초청하였다.”⁸⁾ 1883년 12월 20일 조선을 방문하여 3개월 동안 머문다. 그리고 귀국 후 “로웰은 조선에 체류한 경험을 담은 사진을 모아서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조선 고요한 아침에 나라) 라는

7) 함재봉, 『한국 사람 만들기 111』 경기도, H 프레스, 2020, p. 51.

8) 위의 책, p. 51.

제목의 책을 출판한다.”⁹⁾ 그는 훗날 아리조나주로 이주하여 로웰 천문대를 만들고 명성을 날린다. 그의 남동생 에버트 로렌스 로웰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고(1909~1933) 여동생 에이미 로웰은 유명한 시인이었다.

미국 허버드대학교에 허버드의 상징적 로엘 렉처홀과 기숙사 로엘하우스 건물이 로엘 집안이 기념으로 세운 건물이다



하버드대학교 로웰가가 세운 기숙사

3.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행은 미국 육군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스코필드 장군 (John McAllister Schofield)의 영접을 받았다. 그리고 4일에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 무역협회(Board of Trade)에서 개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다.”¹⁰⁾ 1주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체류한

9) 위의 책, p. 52.

10) 위의 책, p. 51.

보빙사는 시카고로 향한다.

4. 시카고에서

9월 8일 기차 편으로 9월 12일에 시카고에 도착하여 “남북전쟁의 영웅 세리던 장군(Philip Sheridan. 1831-1888)의 영접을 받으며 머문다.”¹¹⁾ 9월 13일에 정부의 영접을 받고 시카고 박람회를 관람한다. 그들은 박람회에서 많은 것을 본다.

5.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가우처 박사

9월 13일 시카고에서 밤 10시 기차로 워싱턴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보빙사 일행은 존 가우처 박사(John Goucher 1845~1922)를 만난다. 가우처에 대해 알아보자.



11) 위의 책, p. 54.

1) 탄생

가우처는 1845년 6월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웨인스보로에서 태어났다.

2) 성장과 목회

1868년 디킨슨 대학(Dickinson College)을 졸업하였고 피츠버그에서 들어온 사업 제의를 거절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 1877년 12월 그는 마리 C. 피셔(Mary F. Fisher) 양과 결혼했다. 그는 1885년 볼티모어 여자대학(1910년 후에 가우처 칼리지로 개명) 설립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1908년까지 총장으로 교육 사업에 헌신하였다. 그리고 그는 21년 목회하는 동안 15개의 교회를 세웠다.

3) 가우처의 선교 여정

그는 감리교 목사이며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소재 가우처 대학(Goucher College)의 설립자요, 인도와 일본에 등 아시아 선교에 열정을 쏟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보빙사를 만나 이틀간 보빙사와 많은 대화를 나눈다.”¹²⁾ 그리고 그는 “워싱턴에 도착하자 알토 데일(Alto Dale)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할 것을 제안 초청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¹³⁾.

4) 가우처의 한국선교

가우처 박사는 조선 선교의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곧 바로 행동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는 조선 선교를 위하여 2천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선교본부에 알린다.”¹⁴⁾ 그리고 선교본부가 3천 달러를 모금하여 5천 달러로 조선 선교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로버트 매클레이 (Robert Samuel Maclay, 1824~1907)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다.”¹⁵⁾ 조선에 가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조선 선교의 문을 열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결국 가우처의 헌신과 매클레이 선교사의 과감한 도전과 노력은 은둔의 나라 조선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12)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kmc 2005 p30

13) 위의 책., p. 35.

14) 위의 책, p. 36. 오영교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서울, 정동삼문출판사 2011. p. 45.

15) 함재봉 『한국 사람 만들기』 경기도, H 프레스, 2019, p. 64.

5) 가우처의 한국사랑

그 후 가우처는 1907년부터 1920년까지 6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 평양, 인천, 등에 교회 뿐 아니라 배재, 이화학당과 연희전문학교 부지 구입, 설립에 재정적 지원으로 헌신했으며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격려하였으며 실제적 선교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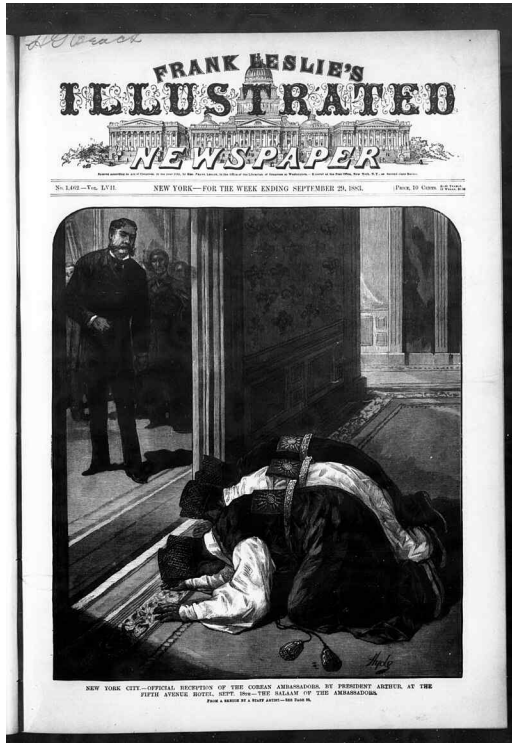
1926년 남북 감리교회 합동을 추진하는 연회에서 종로교회(현 중앙교회)를 “가우처 박사 기념교회”로 확장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한국감리교 전국교회가 동참하여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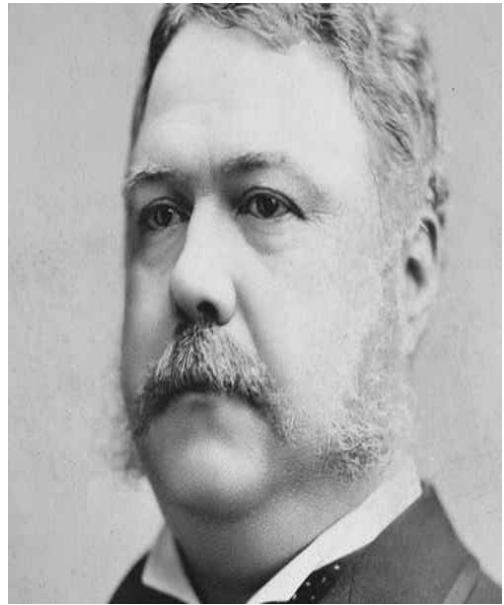
6. 보빙사가 미국 아서 대통령을 만난다

9월 15일 워싱턴에 도착한 보빙사는 체스터 아서 대통령(Chester A. Aethur, 미국 21대 대통령, 1829~1886, 임기 1881~1885년)을 만나기 위해 그가 뉴욕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뉴욕으로 향한다. “1883년 9월 18일 보빙사 일행은 뉴욕 5번가 호텔(Fifth Avenue Hotel)에서 아서 대통령을 만나 고종의 친서를 전달한다.”¹⁶⁾ 이 때에 아서 대통령은 조선과 무역을 증진시키고 기술과 교육 교류를 증진시키면서 상호 간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다.

16) 위의 책., p. 57.



아서 대통령에게 절하는 보빙사



미국 아서 대통령

7. 뉴욕에서 보빙사 그리고 귀국

보빙사는 공장, 병원 소방서, 우체국, 농장, 해군조선소, 신문사, 미 육군 사관학교 등을 시찰한다. 10월 12일 모든 일정을 마친 보빙사는 유길준을 유학생으로 남겨두고 둘로 나뉜다. 홍영식과 고영철, 최경식, 로웰, 우리탕, 미야오카 츠네치로 등은 기차 편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서 증기선으로 태평양을 건너 귀국한다.

“한편 민영익과 서광범, 변수 등은 미국 정부의 제안으로 미국인 폴크의 안내를 받으며 대서양을 건너 파리, 런던, 수에즈운하, 아덴, 봄베이, 실론, 유럽을 거쳐 홍콩, 나가사키를 거쳐 귀국한다. 이들은 당시 미국의 배려로 미국의 전함 중 가장 컸던 3천 9백톤 급의 트렌튼(USS Trenton)호를 타고 6개월 여정을 마치고 1884년 5월 31일에 제물포로 귀국하였다.”¹⁷⁾

8. 로버트 매클레이 (Robert Samuel McClay, 1824~1907) 목사



매클레이



김옥균

“매클레이 목사는 1847년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1872년 일본 선교 책임자로 선임되어 요코하마에 정착한 매클레이 선교사는 그곳에서도 조선인들과 교류한다. 김옥균도 만났다.”¹⁸⁾

가우처 목사의 편지를 받고 매클레이는 조선에 갈 계획을 세웠다. 1884년 6월 8일에 부인과 함께 요코하마를 출발 나가사키로 가서 “6월 19일 난징호로 부산으로 간다. 매클레이 부부는 6월 23일 새벽 1시에 제물포에 도착한다. 오후 6시에 한양으로 가서 푸트 공사 내외의 영접을 받는다.”¹⁹⁾

17) 위의 책, p. 60.

18) 유동식,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kmc, 2005. p. 37.

19) 위의 책, p. 38.

9. 김옥균의 역할, 고종으로부터 선교 유히를 받음

매클레이는 6월 30일 김옥균을 통하여 고종에게 조선에서 의료와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히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편지를 보냈다.

“7월 3일 매클레이는 김옥균을 찾아가서 고종으로부터 선교회가 조선에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유히해 주셨음을 전해 줬다.”²⁰⁾

10. 매클레이 일기

“김옥균은 매우 정중하게 맞아 주었으며 곧 이어서 국왕이 지난 밤에 나의 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의 요구와 일치되게 우리 선교부로 하여금 한국에서 병원과 학교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가하였다고 전해 주었다. 그는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대는 곧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시켜도 좋다고 말했다. 호의적인 반응이 매우 빠르고 훌륭했으므로 나는 그 허락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새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김옥균에게 나를 위해서 이룩해 준 그의 훌륭한 업무 수행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 후에, 복잡한 거리로 나와 거닐면서 자신에게 “나는 허락을 얻었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 했다.”²¹⁾

이러한 과정에는 미국 공사가 개입되어 있었으며, 윤치호는 그의 통역관으로 개입한 듯하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1. 윤치호 일기

“1884년 7월 4일 윤치호의 일기에 새벽에 예궐하여 미국 상회에 내회 운항을 허가 할 것, 미국인에게 병원 및 학교의 설립을 허가할 것, 전신 설치를 허가 할 것 등을 아뢰었다 라고 기록을 남겼다.”²²⁾

20) 위의 책, p. 39. 함재봉 『한국 사람 만들기』 서울, H 프레스, 2019. p. 68, 오영교,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정동삼문출판사, 2011. p. 46.

21) 유동식,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KMC, 2005. p. 39



윤치호



푸트공사

12. 매클레이 편지와 일본으로 복귀

매클레이는 가우처에게 7월 말 편지를 보낸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는 개혁과 진보의 길로 나가기 시작한 조선 정부가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최초의 교회다”²³⁾라고 보고한다.

그러나 조선의 정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표한다. 1천 5백 명의 중국 군대와 소수의 일본 군대도 한양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클레이 부부는 8월 8일에 일본으로 돌아 간다.

13. 가우처의 발 빠른 대처

22) 함재봉 『한국 사람 만들기』 경기도, H 프레스, 2019, p. 68.

23) 위의 책, p. 69.

가우처는 교육과 의료선교가 실력 있는 선교사들이 확보되는 즉시 시작해야 된다고 믿어부친다. “자신이 약속한 2천 달러를 기부할 뿐만 아니라 1885년까지 선교사와 의사 부부가 조선에 파견될 수 있다면 조선에 부지 매입비로 3천 달러를 더 기부할 것을 약속하였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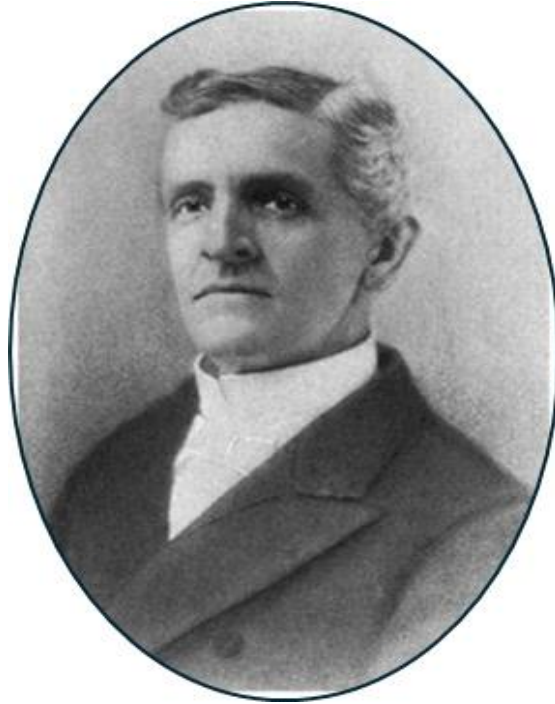
고종황제

14. 미국 감리회에서 조선선교사 파송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림으로 미국감리교 감독 “찰스 파울러(Bishop Charles H. Fowler, 1873. 8. 11~1908. 3. 20)가 1884년 미국감리회 총회 선교위원회는 감리교 최초 한국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결정한다.”²⁵⁾

24) 위의 책... p. 70.

25) 유동식[한국감리교회의 역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05, p36



헨리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감리교 선교사

15. 일본에서 최초 조선 선교 전략회의

“조선의 첫 감리교 선교사들은 1885년 3월 5일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교정에 있는 매클레이 박사 서재에서 첫 공식 선교전략회의를 한다.”²⁶⁾

이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

“조선학교를 세우는 사업을 위해 배정된 기금 중에서 \$200을 동경의 미-일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4명의 조선인 학생들을 1885년 말까지 지원할 것. 매클레이 박사가 감리교 교리문답 조선어 판을 출판할 것. 이수정씨가 번역한 [복음서 언해]도 출판할 것. 학교설립 기금 중 250\$ 달러를 책자와 찬송가를 번역하고 출판하는데 배정했다.”

26) 함재봉[한국 사람 만들기] 경기도 H 프레스 2023 p. 71. 이 회의는 매클레이 박사가 의장으로 아펜젤러 목사 내외 스크랜튼 내외 메리 스크랜튼, 언더우드, 이수정이 참석하였다.

16. 보빙사의 종합 평가

1) 조미 수교 후 고종이 미국으로 보빙사를 파견하였으나 전 과정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이다.

2) 보빙사가 미국을 왕복하며 만난 로웰과, 가우처 목사, 그리고 미국 감리교 선교부와 관계와 매클레이 박사와 김옥균의 역할을 이수정씨를 통하여 개신교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 민족의 축복의 기회인 것이다.

3) 그러므로 한국 땅에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와 새로운 교육과 의료 사업과 근대화로 가는 놀라운 변화는 오늘날 세계 선교 대국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또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말하게 되었다

4) 아시아 선교역사상 국왕이 선교사를 받아드리고 선교윤허를 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이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말고 7월 3일을 선교윤허의 날로 기리고 지킬 것을 제안한다.





신학대학원

신학사 (B.Th), 신학석사(Th.M), 신학박사(Th.D),
철학박사(Ph.D in Theology) 및 통합과정

/1. 신학석사(Th.M) 졸업 요구학점

- (1) 신학사(B.A)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 (2) 문학석사(M.A)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 (3) 목회학석사(M.Div)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20학점



2. 신학전공 철학박사(Ph.D) 과정 학생은 논문 10학점을 포함하여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전공을 선택하려면 필수과목 이외에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 (예: 성서학 전공, 조직신학 전공, 교회사 전공, 실천신학 전공 등).

4. 논문작성은 필수이며, 10학점으로 한다.

5. 문학석사(M.A)와 신학석사(Th.M) 과정 학생은 5과목(10학점) 이상의 교양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6. 입학요건은 목회학석사(M.Div)나 문학석사(M.A) 학위 소지자와 이에 따르는 정규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2026년 4월 강좌 안내

개강 4월 6일부터 7주간

(한국시간 기준)

월 오후 1시 김재수교수 - 신약개론
월 오후 3시 강신일교수 - 히브리어 기초
월 오후 8시 이창준교수 - 성경적 리더십
월 오후 8:30 어진옥교수 - 위기 디브리핑

화 오전 10시 김해규교수 - 전도학
화 오후 8시 김현진교수 - 선교신학
화 오후 8시 김부식교수 - 한국 시문학과 작가

목 오후 7시 나주아교수 - 산상수훈
목 오후 9시 성용오교수 - 소선지서

금 오후 8시 구본식교수 - 세계관(롬 II)

토 오후 8시 조창식교수 - 미디어와 선교

(영상 강의)

김중구교수 - 구원론, 야고보서
나주아교수 - 모세오경, 바울의 종말론
이성상교수 - 품성리더십, 기독교윤리학, 논문작성법

선교사님을 행복하게



하베스트대학교

인도와 네팔 선교여행 기도요청

Missionary CHUNG, DAVID IL



정일 교수
하베스트대학교 목회대학원
전, 목포대 교수

20여 년 전에 북인도 카시미르 선교를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이번엔 다시 3월 30일~4월 10일까지 인도(첸나이, 코임바토르, 살렘, 뉴델리)와 네팔(카트만두, 듀리켈)에 선교여행 및 설교 여행을 합니다.

3월 30일 새벽 2시에 고속버스로 인천으로 올라가 오전에 출국하여 방콕을 거쳐 인도 첸나이에 저녁 12시경에 도착 예정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아내 목사 임직식이 4월 25일 광주 푸른솔 교회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첸나이의 오픈 도어 교회, 오픈도어 선교회와 스테판 데바쿠마르 목사님 그리고 3월 31일 부흥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2) 3,000개 교회가 소속된 인도 복음연맹 총재님 사무엘 스티븐



스 총재 목사님과 연결되어 많은 목회자세미나 및 부흥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복음연맹의 사역이 네팔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마하발리푸람(Mahabalipuram)의 교회 봉헌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타이라파띠(Thairampatti)의 직업훈련학교의 발전과 훈련생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이 날 설교 메세지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도록

3) 인도 복음연맹의 공동체 사역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샤론교회와 살렘 공동체 및 인도 복음연맹에서 운영하는 학교, 병원, 공동체 센터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께서 더욱 확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4)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느헤미야 센터(대표간사:김종찬 선교사)의 영적 사역과 느헤미야 센터에서 거행되는 네팔 목회자 세미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세요(참석 대상 목회자 약50여명)
설교메세지에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여주옵소서.

5) 아내 한경옥 권사가 네팔에서 글 없는 책을 통해 알기 쉬운 전도방법을 영어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가족성장 상담 대학원

가족성장 상담학석사 과정 (36학점)

Master of Arts in Family Counseling and Development

1. 전공필수과목

10과목 20학점, 아래 15과목, 각 2학점 중 10과목 선택 가능

가족치유 7 과정

내적 치유 (오광복/이은경 교수), 역기능가정 치유 (오광복 교수)

우울증과 분노 치유 (오광복 교수), 성격장애 및 인격장애 치유 (오광복 교수)

위기 디브리핑 (위기치유상담) (어진옥 교수)

사람 의존성 치유 (오광복 교수), 거짓된 사고 치유 및 중독 치유 (오광복 교수)



가족성장 5 과정

MBTI와 인간 이해 (이은경 교수), 중년기 변화와 성장 (이은경 교수)

인간관계훈련 (오광복 교수), 대화훈련 (이은경 교수)

향기나는 인격과 관계성장 (오광복 교수)

독서치유 3 과정

독서치유 상담 (오광복/이은경 교수)

독서상담의 실제 (어미선 교수), 독서상담실습 (어미선 교수)

2. 자격증 과정 (추가과정)

가족성장 상담사, 가족치유 상담사, 독서치유 상담사

하베스트 대학교 가족성장 Zoon 위기디브리핑 강좌

- 인생 위기 사건 후 PTSD 방지 -

일시: 4/6월 - 6/1월 (8주간) 매주 월 8:30pm 한국시간

내용

- ✓ 디브리핑 소개와 성경적 기초
- ✓ Active Listening / 스트레스와 중독
- ✓ 위기와 PTSD / 전인적 건강과 정신병리
- ✓ 위기디브리핑의 안전모델 소개와 실습
- ✓ 상담과 디브리핑의 분명한 차이
- ✓ 건강한 소통과 십자가의 상관관계

강의: 어진옥 교수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 상담 대학원 교수 / GBT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

등록마감: 4/3금

등록비: 청강 3만원, 학위과정 수강 20만원 (2학점)

등록방법:

하나은행 380-910034-99405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송금시 수강자 이름과 '가족성장'을 적어주세요.

하나님은 목표가 아니라 ‘이름’을 먼저 세우신다

정체성이 사역을 끌고 간다

이사야 43:1, 마가복음 3:13-15, 요한복음 15:16



김형철 교수

미래창조대학원 원장

33회 세계선교컨퍼런스 주강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룰지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세우신다.

1. 들어가는 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참 오래 목표를 향해 살아왔습니다.

- 몇 명을 전도해야 한다
- 사역을 얼마나 확장해야 한다
- 어떤 열매를 보여야 한다
- 얼마만큼 성장해야 한다
- 얼마나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목표는 필요합니다. 사역에는 방향이 있어야 하고, 책임도 있어야 하며, 열매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사람으로는 살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는 살지 못하

게 되는 데 있습니다. 목표가 앞서면 늘 불안합니다. 아직 안 이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중심이 되면 늘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더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나를 끌고 가면 쉽게 지칩니다. 결과가 나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나” 이전에,

“너는 누구냐”를 알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아니라 이름을 먼저 세우십니다. 정체성이 사역을 끌고 가야지, 목표가 존재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소속을 확정하십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관계를 선언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기 전에 정체성을 세우십니다. 성경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 아브람에게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 야곱에게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 시몬을 먼저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후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후에 보내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르심

1. 함께 있음
2. 보냄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꿉니다.

1. 먼저 일함
2. 그다음 인정받으려 함
3. 나중에야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함

하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부르시고, 먼저 함께하시고, 먼저 소속을 주신 뒤에 보내십니다.**

3. 목표 중심 신앙은 왜 불안과 소진으로 가는가

우리의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정체성보다 목표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목표 중심 신앙은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쉽게 생깁니다.

첫째, 목표 중심 신앙은 늘 불안합니다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나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 아직 열매가 없다
- 아직 후원이 부족하다
- 아직 팀이 안정되지 않았다
-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
- 아직 기대만큼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목표 중심 사람은 오늘을 살지 못하고 늘 “아직”에 갇힙니다.

둘째, 목표 중심 신앙은 비교를 낳습니다

목표는 수치화되기 쉽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크게 했는지,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나에게 격려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결핍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목표 중심 신앙은 결국 소진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가치가 결과와 묶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안 되면 내가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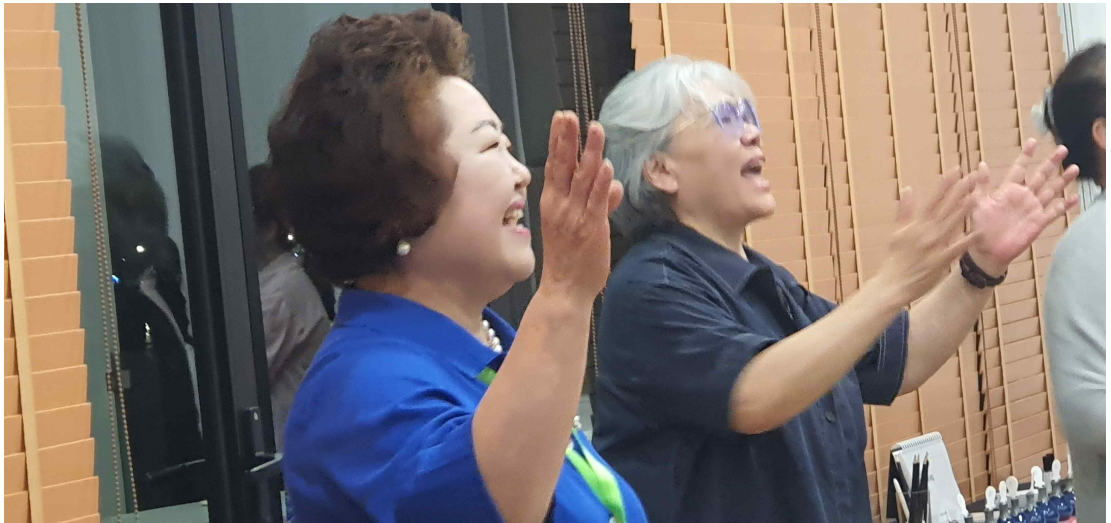
그러면 사역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증명의 무대가 됩니다.

이 길은 오래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는 방향일 수 있지만,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는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4. 정체성 중심 신앙은 왜 방향과 지속성을 만드는가

정체성 중심 신앙은 결과를 무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를 건강하게 감당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정체성 중심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 나는 열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 나는 성과 이전에 사랑받는 자녀다

- 나는 결과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이다
 - 나는 성공한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자다
- 이 정체성이 있으면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열매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는 늦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결과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최종 판결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역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특히 선교는 긴 호흡의 순종입니다. 오래 가는 사람은 대개 더 재능 있는 사람보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5. 선교사와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무엇을 할까?”보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만이 아닙니다. 핍박만도 아닙니다. 외로움만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사역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 열매가 없으면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 후원이 줄면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 비교가 시작되면 내 부르심이 흐려집니다
- 사역의 속도가 늦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내셨나 싶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면 다르게 반응합니다.

-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 “나는 지금도 부르심 안에 있다.”
- “열매가 늦어도 보냄 받은 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나는 성과를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종이다.”

이 고백이 선교사를 살립니다.

이 고백이 목회자를 오래 가게 합니다.

이 고백이 사역자를 다시 일으킵니다.

6. 실천 가능한 적용: 정체성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좋은 말”로 듣고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실제로 고정해야 합니다.

Who + How + What

- **Who:** 나는 누구인가
- **How:** 나는 어떤 원칙으로 살 것인가
- **What:** 오늘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실제로 해 보아야 합니다.

7. 설교 중 실천 1: Who - 정체성 문장을 한 줄로 써야 합니다

정체성은 막연하면 위기 때 힘을 못 씁니다. 한 줄로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 나는 열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 나는 성과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선교사다.
-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다.
- 나는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 받은 사람이다.
- 나는 결과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사는 자다.

중요한 것은 멋진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문장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후 여러분은 반드시 한 문장을 써야 합니다.

“나는 ----- 이다.”

이 빈칸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목표의 언어로 돌아갑니다.



8. 설교 중 실천 2: How - 내 사역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정체성이 있다면,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원칙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원칙입니다.

- 나는 성과보다 충성을 우선한다
- 나는 비교보다 부르심에 집중한다
- 나는 사람을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혼으로 대한다
- 나는 지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쉰다
- 나는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순종에 책임진다

정체성이 방향을 준다면, 원칙은 걸음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체성은 말하지만 실제 삶은 다르게 삽니다. 그 이유는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

다.

9. 설교 중 실천 3: What - 오늘의 순종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실천은 언제나 “오늘”로 내려와야 합니다.

너무 거창하면 오래 못 갑니다. 정체성은 오늘의 작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 오늘 사역 성과를 계산하기 전에 10분 기도로 정체성을 다시 고백한다
- 오늘 한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영혼으로 대한다
- 오늘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감사한다
- 오늘 가족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지킨다
- 오늘 불안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를 소리 내어 고백한다
- 오늘 미루던 순종 한 가지를 시작한다

정체성은 생각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천**으로 굳어집니다.

10.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

어쩌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이기 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부르심보다 비교를 더 의식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체성보다 목표를 제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주님, 사역이 무너지면 제 존재도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책망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선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1. 결론: 사역은 목표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끌고 가야 합니다

사역이 우리를 끌고 가게 두지 마십시오.

목표가 우리를 끌고 가게 두지 마십시오.

비교가 우리를 끌고 가게 두지 마십시오.

정체성이 사역을 끌고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 네가 얼마나 했느냐
- 얼마나 이루었느냐
-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안에서 누구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늦어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열매가 더더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보다 먼저 이름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의 기도

주님,

제가 목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체성 안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역보다 먼저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소서.

성과보다 먼저

제가 주님의 것임을 믿게 하소서.

열매가 늦어질 때에도

부르심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고,

비교가 올라올 때에도

제게 맡기신 길에 충성하게 하소서.

태국 치앙마이 Campus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하베스트 선교센터는 선교사들의 휴식과 재교육의 장소를 위해서 건축되었습니다.

하베스트 가족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고 오셔서 논문도 쓰시고 쉽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용료 1인 1일 2만원 (조식포함)

치앙마이 센터 예약 (하베스트대학교 홈페이지)



선교센터 입구



입구에서 본관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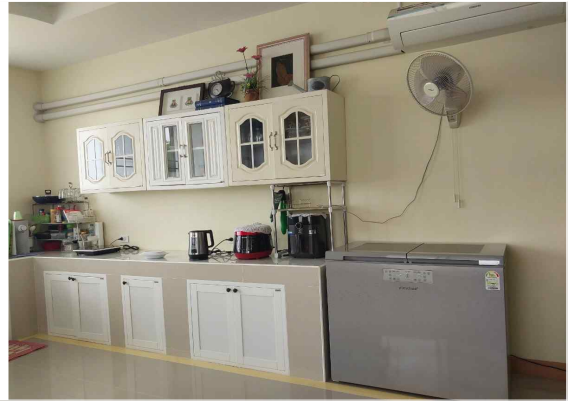


선교센터 정면





4만 여권의 도서가 있는 도서관



2층 게스트하우스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에서는 - 선교사 연장교육원, 하베스트 대학교, 치앙마이 선교센터, 선교사 복지(연금, 열방물)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재충전, 재교육, 재헌신하시도록 섬기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하베스트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하베스트 치앙마이 센터가 많은 선교사님의 고향 집, 친정집처럼 활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하베스트 선교사님들에게 연금을 풍성하게 지급하여 마음의 위안을 주는 기관으로** 똑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500명에게 150만 원씩 매월 연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언제든 달려오십시오!

항상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웃고, 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어 봅시다.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은 한국, 태국, 미국 정부에 공식 등록된 단체입니다.

하베스트는 교육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추수하도록 **선교사 연장교육원**, **하베스트 대학교**, **치앙마이 선교센터**, **선교사 연금** 등의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자!”

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영성과 품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 **하베스트 대학교** ◆ **선교사 연장교육원**
- ◆ **치앙마이 선교센터** ◆ **선교사 복지(연금, 열방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베스트는 늘 선교사님 곁에 있겠습니다.



기도는 ‘이미 응답 된 감정’에서만 작동한다.

믿음의 감정이 뇌·이미지를 움직인다



김형철 교수

미래창조대학원 원장

33회 세계선교 컨퍼런스 주강사

1. “기도는 ‘이미 응답된 감정’에서만 작동한다.”

이 문장은 기도를 단지 말이나 형식이 아니라, 감정·뇌·내적 이미지가 함께 작동하는 영적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일하신다는 확신과 평안이 형성 될 때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주장입니다.

2. “기도가 작동하려면 뇌·감정·이미지가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세 요소가 나옵니다.

뇌: 반복되는 생각과 해석의 자리

감정: 두려움인지 평안인지, 불신인지 확신인지의 상태

이미지: 마음속에 그려지는 장면과 기대

많은 사람은 기도를 입술의 언어로만 생각하지만,

이 강의는 기도가 실제로는 전인격적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느냐가 기도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3. 믿음의 감정 규정

“그 참여를 가능케 하는 감정은 이미 응답된 줄 믿는 확신·평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종류입니다.

모든 감정이 기도를 돕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안

조급함

공포

체념

이런 감정은 기도 제목은 말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기도 상태로는 잘 이끌지 못합니다.



이 강의는

응답 이후에 누릴 법한 감정, 곧

감사

평안

확신

안도

소망

이런 감정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4.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수사가 아니라 작동 공식이다.

이 말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원리를 단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간구하고 그다음 의심과 불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상태에 머물며 그 상태를 감정과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가 실제 삶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5. 기도는 말보다 깊은 내면의 상태와 연결된다

많은 경우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마 안 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이번에도 응답이 없을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와 내면 상태가 분리되면, 사람은 오래 기도해도 더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단지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서적

자세를 복음 안에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6. 믿음은 단지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정서적 동참이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지만, 실제로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참된 믿음이 단지 지적 동의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까지 하나님께 붙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 가지를 함께 포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아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신뢰하는 것,
그 결과 아직 보이지 않아도 평안을 선택하는 것,

7. 이미지는 불신의 통로가 될 수도, 믿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은 늘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실패하는 장면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

사역이 막히는 장면

병이 더 악화되는 장면

이런 이미지를 반복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장면

화해하는 장면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

내가 평안히 순종하는 장면

을 붙들면, 내면은 점점 믿음 쪽으로 정렬됩니다.

이 강의는 아마 이 지점을 “Faith-Emotion Image Prayer”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8. 기도는 결과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정렬이다

여기서 한 가지 균형 있게 볼 점도 있습니다.

“이미 응답된 감정”은 내가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원하는 결과를 무조건 끌어당긴다는 의미로만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들으심을 신뢰하는 상태 안으로 내 마음을 옮기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평안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된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일하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뢰여야 합니다.

9. 선교사의 기도는 불안 배출만이 아니라 믿음의 정렬이어야 한다

선교사는 현실적으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비자 문제

재정 부족

건강 문제

언어 습득

팀 갈등

현지 사역의 열매

자녀 교육

안전 문제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가 쉽게 염려의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문제를 말하지만, 기도 후에도 마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선교사는 단지 문제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평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후에도 더 불안해진다면, 아직 믿음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10. 사역 현장의 두려운 이미지를 믿음의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

선교 현장에는 부정적 상상이 쉽게 들어옵니다.

“이번 만남도 실패할 거야.”

“그 사람은 절대 복음을 안 받을 거야.”

“우리 팀은 결국 깨질 거야.”

“이 지역은 너무 완고해서 변화가 없을 거야.”

이런 이미지가 반복되면 기도도 위축됩니다.

입술로는 선포하지만 마음은 이미 패배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믿음으로 붙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씨가 조용히 심기는 장면

한 영혼의 마음이 열리는 장면

팀 안에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

현지 교회가 자라나는 장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서 있는 장면

이것은 상상 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려움보다 더 깊이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3) 응답 후의 감정을 미리 누리는 것은 선교사의 소진을 줄인다

선교사는 “아직 안 됐다”는 감정 속에 오래 머물기 쉽습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 ‘아직’의 감정이 쌓이면 사람은 만성적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응답 후에 누릴 법한 감사와 평안을 미리 누리게 합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현재의 몸과 마음을 과도한 공포에서 지
 키는 일입니다.
 선교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역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래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강사 최미경

아로마테라피협회 협회장
 최미경아로마연구소 소장
 아로마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주)U&C 벤자롱 이사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미용예술학과 겸임교수
 목원대학교 화장품학과 교수
 (사)한국뷰티산업능력개발협회 이사
 아로마테라피 상품 개발자
 뷰티 & 스파 프로그램개발자
 뷰티 & 스파 교육프로그램개발&전문강사

11. 선교사는 ‘간구’만이 아니라 ‘감사’를 함께 훈련해야 한다

믿음의 감정은 감사와 깊이 연결됩니다.
 감사는 응답이 모두 눈에 보인 뒤에만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기도는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주님,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평안으로 붙드소서
이런 감사는 영적 긴장을 푸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12. 기도 후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강의의 실제적 적용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전히 조급한가
더 무거워졌는가
마음이 흩어졌는가
아니면 평안해졌는가
하나님께 맡겨졌는가
감사가 생겼는가
선교사에게 기도의 열매는 단지 외적 응답만이 아니라,
기도 후 마음이 하나님께 정렬되는 것입니다.

13. Faith-Emotion Image Prayer를 적용하기

1) Faith : 믿음의 고백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예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
하나님은 내 사역보다 먼저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2) Emotion : 응답 후의 감정을 먼저 받기

그다음 아직 결과가 다 보이지 않아도,
응답 이후에 누릴 감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시

안도감

평안

감사

기쁨

담대함

기도 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직 눈으로 다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들으신 줄 믿으며 평안을 받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이미 주의 손에 올려드렸으니
감사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3) Image : 믿음의 이미지를 고정하기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장면을 마음에 붙입니다.

예시

현지인이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 장면

아픈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장면

팀이 함께 웃으며 기도하는 장면

내가 낙심 대신 담대함으로 하루를 사는 장면

현지 교회가 예배 가운데 서는 장면

중요한 것은 환상적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4) Prayer : 기도로 마무리하기

마지막으로 말과 감정과 이미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예시 기도

“주님, 이 사역의 문을 여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두려움 대신 주의 평안을 받습니다.
 이미 주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낙심이 아니라 감사로 걷게 하시고,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복음의 씨가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14. 실제 적용 예시

사례 1) 열매가 보이지 않는 개척 선교사

문제 상태: “아무 변화가 없다. 내 사역은 실패한 것 같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신다.”

응답의 감정: “주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평안을 받는다.”

이미지: “한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말씀이 심겨지는 장면”

오늘의 순종: “성과 집착 대신 한 사람을 사랑으로 깊이 섬긴다.”

사례 2) 재정과 후원 문제로 불안한 선교사

문제 상태: “앞이 막막하다. 계속 불안하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지신다.”

응답의 감정: “궁핍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도한다.”

이미지: “필요한 문이 열리고, 나는 조급함 없이 충실히 사역하는 장면”

오늘의 순종: “불안한 생각을 반복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다.”

사례 3) 팀 갈등 가운데 있는 선교사

문제 상태: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신다.”

응답의 감정: “화해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다.”

이미지: “함께 앉아 진실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

오늘의 순종: “상대의 입장을 듣는 작은 화해의 행동을 시작한다.”

15. 선교 훈련이나 나눔 시간에 사용할 질문

나는 기도할 때 문제만 반복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하심 안에서 평안으로 들어가는가?

내 기도를 방해하는 주된 감정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조급함인가, 체념인가?

내 마음속에 반복되는 부정적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붙들어야 할 믿음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나는 기도 후에 더 불안해지는가, 아니면 더 하나님께 맡겨지는가?

오늘 내가 먼저 받아야 할 ‘응답 후의 감정’은 무엇인가? 감사인가, 평안인가, 담대함인가?

“선교사의 기도는 문제를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믿음의 평안과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어야 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의 감정을 먼저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미지를 붙든 채 오늘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HARVEST UNIVERSITY 일본 동경 Campus

학장 박영희 박사



인도 나갈랜드 Campus

학장 장병욱 선교사 석사, 박사 영어 과정



HARVEST UNIVERSITY 한국 태안 Campus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608-193 010 2733 6287, 010 6560 6287

학장 박춘숙 선교사

하베스트 가족 (선교사님들과 가족) 1인 1일 2만원



한국 제주 Campus

학장 김규동 박사



설교는 강단에서 끝나지 않는다.

맞춤 설교는 '디지털 전달 구조'까지 포함한다



김형철 교수

미래창조대학원 원장

33회 세계선교컨퍼런스 주강사

1. 설교는 강단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설교를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개인 안에 스며드는 과정**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설교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말씀의 의미가 개인의 삶에 **도착하고, 머물고, 반복해서 상기되는 구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맞춤 설교는 디지털 전달 구조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맞춤 설교는 단지 설교 시간에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 예화를 다르게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도 각 사람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후속 접촉**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즉,

- 강단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 그 후에는 개인의 성향과 필요에 맞게
- 이메일, 문자, 편지, 짧은 콘텐츠 등으로
- 말씀을 다시 개인에게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이 강의가 말하는 완성된 맞춤 설교입니다.

3. MBTI/기질의 역할 재정의

“MBTI/기질은 복음의 입구를 열어주는 번역 도구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MBTI나 기질을 사람을 고정적으로 낙인찍는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각 사람에게 더 잘 이해되도록 번역하는 도구로 봅니다.

예를 들면,

- 어떤 사람은 논리와 구조를 통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 어떤 사람은 관계와 공감을 통해 열리며
- 어떤 사람은 도전과 비전을 통해 움직이고
- 어떤 사람은 안정감과 반복을 통해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향 이해는 사람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다른 통로로 전달하기 위한 목회적 지혜가 됩니다.

4. 디지털 수단의 의미 재정의

“이메일/문자/편지/콘텐츠 자동화는 세속화가 아니라 목회적 지속 접촉이다.”

많은 사역자들은 디지털 도구나 자동화를 사용하면 복음이 기계적이 되거나 세속적으로 보일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핵심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 편의를 위해 사람을 관리하려는가
- 아니면 말씀을 잇기 쉬운 사람에게 다시 사랑으로 닿게 하려는가



을 하자는 것입니다.

6. 설교는 ‘이해’뿐 아니라 ‘도착’의 문제다

좋은 설교를 했다고 해서 말씀이 자동으로 개인 안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예배 중 감동을 받아도 월요일이 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정보 과부하 속에 살기 때문에, 말씀은 금방 다른 자극에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설교를 잘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실제로 남게 하는 구조로 보라고 말합니다. 즉, 설교는 전달 순간보다 전달 이후의 잔존성도 중요합니다.

7. 복음은 같지만, 입구는 다를 수 있다

후자라면 디지털 도구는 세속화가 아니라

현대 환경 속에서 사람을 꾸준히 돌보는 목회적 확장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5. 실천 과제 제시 - “성향별 핵심 한 문장 + 성향별 맞춤형 이메일/편지 1통 작성”

결국 설교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달이어야 하므로, 각 성향의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짧고 정확한 한 문장**과 그 사람의 내면 언어에 맞는 **후속 메시지**를 만드는 훈련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리인가?”를 먼저 묻고
-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를 먼저 느끼고 싶어 하며
-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고
-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내 현실에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찾습니다

따라서 맞춤 설교란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갈 문을 세심하게 찾는 일입니다.

8. 디지털 접촉은 현대적 ‘심방’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설교 후 돌봄이 주로 대면 심방, 편지, 개인 상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삶이 모바일과 디지털 구조 안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드뉴스, 짧은 음성 메시지 등은 현대적 의미의 후속 목양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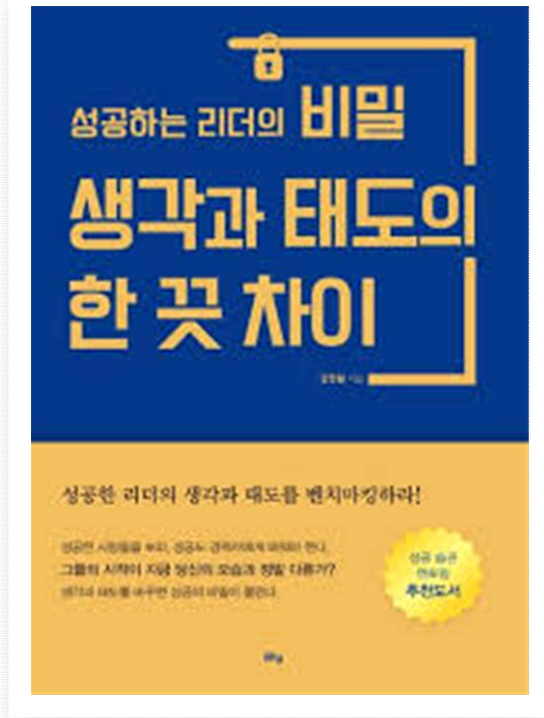
- 자동화가 관계를 대체하면 차갑습니다
- 자동화가 관계를 보조하면 유익합니다

이 강의는 후자를 말합니다.

9. 개인화는 ‘특별대우’가 아니라 ‘목회적 세밀함’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후속 메시지만 보내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개인의 내면에 깊이 닿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향과 상황을 반영한 한 문장은 사람에게 “말씀이 나에게 왔다”는 느낌을 줍니다.

설교가 군중에게만 머물지 않고 개인에게 도착할 때, 사람은 복음을 더 자신과 연결하게 됩니다.



10.. 성경적·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내용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목양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았 습니다.

- 니고데모에게는 다시 남의 진리를
-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마름과 예배의 언어를
- 어부들에게는 사람 낚는 비유를
-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고의 언어

를

-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처럼, 복음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전달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향 이해와 맞춤 전달은 복음을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깊이 들리게 하려는 목회적 성육신에 가깝 습니다.

11. 적용

선교 현장에서는 이 강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단지 설교 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언어·세대·기질의 사람에게 복음이 계속 도 착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 선교사는 ‘한 번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닿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

다

선교 현장에서는 한 번의 설교나 성경공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은 반복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가갈 때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 오늘 전한 말씀이 이 사람에게 내일도 남을까?
- 예배 후 그 사람이 다시 붙들 수 있는 문장은 있는가?
- 삶의 현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는가?

즉, 선교는 **말씀의 재도착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2) 문화와 기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교사는 문화 번역도 해야 하고, 성향 번역도 해야 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도

- 감정 중심형
- 논리 중심형
- 관계 중심형
- 행동 중심형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에 따라 직접적 표현이 열리는 곳도 있고, 간접적 표현이 더 적절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맞춤 설교는 단지 MBTI에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 + 언어 + 성향을 함께 고려하는 번역 사역이 됩니다.

3) 디지털 전달 구조는 선교지에서 매우 강력한 후속 양육 도구가 된다

선교지에서는 대면 접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 거리 문제
- 시간 문제
- 안전 문제
- 정부 규제
- 흩어진 공동체 구조

이럴 때 디지털 전달 구조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 예배 후 핵심 한 문장을 문자로 보내기
- 초신자에게 3일 뒤 묵상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기
- 청년들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로 말씀을 재전달하기
- 새신자에게 기질별 격려 편지를 보내기
- 제자훈련생에게 자동화된 주간 말씀 요약을 보내기

이런 구조는 사역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4) 맞춤형 후속 메시지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성향별 메시지를 쓰려면, 먼저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어떤 언어에 마음이 열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전달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더 세밀하게 사랑하는 훈련이 됩니다.

즉, 맞춤 설교는 기술 이전에
관찰과 경청과 공감의 사역입니다.



5) 자동화는 목회 대체가 아니라 목회 보조여야 한다

여기서 특히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자동화가 편리하다고 해서 모든 목양을 템플릿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데이터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자동화는

- 반복 가능한 기본 돌봄
- 말씀 상기
- 일정한 접촉 유지
- 기도 제목 리마인드
- 양육 흐름 유지

에는 유익하지만,

깊은 상처, 회개, 갈등, 위기, 분별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적 관계와 목회적 동행이 따라가야 합니다.

12. MBTI/기질을 ‘분류’가 아니라 ‘번역’으로 이해하기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균형점은 이것입니다.

MBTI나 기질은 사람을 규정하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언어를 찾는 참고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크게 단순화하면,

- 사고형 성향에게는 구조와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정형 성향에게는 관계와 공감의 언어가 더 잘 열릴 수 있습니다
- 직관형 성향에게는 비전과 의미의 연결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감각형 성향에게는 실제적 적용과 구체성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을 고정시켜선 안 됩니다.

성향은 출발점일 뿐, 복음은 모든 사람을 더 넓고 깊게 자라게 합니다.

13. 선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성향별 핵심 한 문장 예시

하나의 설교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해 보겠습니다.

논리·구조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는 상황의 불확실성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더 안정적으

로 서 있습니다.”

관계·공감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행동·도전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정·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도 당신의 삶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한 문장은 설교 후 개인에게 다시 보낼 때 매우 유용합니다.



14. 성향별 맞춤 이메일/문자/편지 예시

같은 설교 내용을 후속 전달할 때도 표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논리형에게 보내는 짧은 이메일

제목: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상황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이번 주에는 불안을 느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구분해 적어 보십시오.”

2) 관계형에게 보내는 문자

“오늘 말씀처럼, 당신은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공동체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외로운 순간에 이 문장을 다시 붙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3) 행동형에게 보내는 메시지

“오늘 말씀을 삶으로 옮길 한 가지를 정해 보세요.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미루지 말고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시는 주님과 움직이는 것입니다.”

4) 안정형에게 보내는 편지

“이번 주에도 여러 변수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를 질서 없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5분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을 회복해 보십시오.”

15. Personalized Digital Ministry Lab로 볼 수 있는 실제 워크숍 방향

이 워크숍은 이론보다 실습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하나의 설교 주제를 정합니다.

예: 정체성, 두려움, 순종, 용서, 기다림, 기도

2단계

청중 유형을 단순하게 나눕니다.

예:

논리형 / 관계형 / 행동형 / 안정형

3단계

각 성향별 핵심 한 문장을 만듭니다.

4단계

각 성향별로 설교 후 도착할 메시지를 씁니다.

- 문자 1통
- 이메일 1통
- 짧은 편지 1통
- 카드뉴스 문구 1개



5단계

그 메시지가 실제로 “개인에게 닿는가”를 점검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 이 문장은 그 사람의 언어로 들리는가?
- 복음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더 잘 전달하는가?
- 강단 이후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는가?

9.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실제 적용점 정리

첫째

설교를 준비할 때 “무엇을 말할까”뿐 아니라
“예배 후 어떻게 다시 도착하게 할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을 분류하지 말고, 복음을 번역할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도구를 두려워하지 말되, 관계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설교의 열매는 강단의 반응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한 주간 개인의 삶에 다시 떠오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째

선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후속 구조가 제자훈련과 돌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는 강단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복음이 다시 개인에게 도착하도록
설계될 때 비로소 더 깊은 목회가 된다.



AROMATHERAPY

향기로 말하는 여자

최영자

향기 좋아해요
자꾸만 향수꽂이를
그려 놓았어요
언제나 행복해요



BCA
한국향약

재정의 기름부음은 ‘설계된 흐름’ 위에 임한다

성경적 ‘돈 버는 청지기 뇌’로 미래 사역을 열다



김형철 교수
미래창조대학원 원장
33회 세계선교컨퍼런스 주강사

1. 재정의 기름부음은 설계된 흐름 위에 임한다.

이 문장은 재정 축복이나 공급을 우연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건강한 흐름과 질서 안에서 다루는 사람에게 더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돈이 들어오게 해 달라”가 아니라, 돈이 흘러갈 통로와 태도와 구조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묻는 강의입니다.

2. 돈/일터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내면 OS의 문제다.

여기서 OS는 운영체제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돈 문제 앞에서 단순히 지식이 없어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깔린 자동 반응 체계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동 반응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 **두려움:** 부족할까 봐 움츠러듦
- **비교:**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짐
- **회피:** 재정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미룸

이 강의는 돈 문제를 “얼마를 버는가” 이전에 돈 앞에서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의 문제로 봅니다.

3. 두려움/비교/회피에서 청지기 상태로 전환하라.

성경적 청지기란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재정을 대할 때

- 내 생존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포
-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심
-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회피

이 상태에서 벗어나,

-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신뢰하고
-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며
- 작은 것부터 질서 있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4. “작은 순종(1cm)이 흐름을 연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 앞에서는 많은 사람이 큰 돌파만 기다립니다.

- 큰 후원자
- 큰 계약
- 큰 기회
- 큰 기적

하지만 이 강의는 오히려 **작은 순종의 반복이 흐름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 미루던 재정 점검을 오늘 시작하기
- 작은 수입의 통로를 정직하게 열기
-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고 감사 기록하기
- 지출을 회피하지 않고 정리하기
- 사역과 일터의 접점을 작게 실험해 보기

즉, 큰 기름부음은 종종 작은 순종 위에 이어집니다.



5. 성경적 돈 버는 뇌 만들기 21일 프로젝트로 확장된다.

지속 훈련 플랫폼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반응은 하루 설교로 바뀌기보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즉, 컨퍼런스 이후에도

- 내면 반응 인식

- 기도적 전환
- 작은 실행
- 흐름 설계

를 계속 훈련하게 하는 미래형 사역 구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6. 돈 문제는 액수보다 상태의 문제일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재정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돈이 더 있으면 해결된다
- 정보가 더 있으면 달라진다
- 기회만 생기면 된다

물론 수입과 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정보가 있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기회를 성실히 키우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재정을 잘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비교 때문에 계속 불만족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재정 문제를 단순한 경제 기술이 아니라 **영적·정서적 운영 체계의 문제**로 봅니다.

7. 돈은 사람의 숨은 믿음을 드러낸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실제 믿음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 나는 하나님보다 통장을 더 신뢰하는가
- 나는 부족함에 과민 반응하는가
- 나는 남의 풍요를 보며 초조해지는가
- 나는 책임져야 할 문제를 자꾸 미루는가
- 나는 공급보다 통제를 더 원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8. 청지기적 재정관은 가난 찬양도, 탐욕 정당화도 아니다

성경적 청지기 개념은 두 극단을 피합니다.

하나는

“돈은 영적이지 않으니 관심 두지 말자”는 식의 회피입니다.

다른 하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식의 단순화입니다.

성경적 관점은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 일은 거룩한 소명일 수 있다
- 돈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니다
- 많이 맡겨질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
- 재정은 사역의 적이 아니라 청지기 훈련의 장이다

9.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열매다

기름부음도 흐름 위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흐름은 단지 돈의 흐름만이 아닙니다.

- 생각의 흐름
- 감정의 흐름
- 결정의 흐름
- 일의 흐름
- 관계의 흐름
- 수입과 지출의 흐름
- 사역과 일터의 연결 흐름

즉, 혼란과 회피 속에 사는 사람보다 질서와 충성 속에 사는 사람에게 더 건

강한 재정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10. 삶에 적용

1) 선교사의 재정 문제는 단지 후원 부족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선교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 후원만 더 있으면 된다
- 지원만 늘어나면 해결된다
- 재정 압박은 외부 환경 탓이다

물론 실제로 외부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선교사 안에도 돈 앞에서의 자동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후원이 줄면 즉시 공포에 빠짐
- 다른 선교사와 비교하며 위축됨
- 재정 점검을 미루며 회피함
- 일터 선교나 자립 모델을 죄책감으로 막아 버림
- 돈 이야기를 비영적으로 여겨 대화를 피함

이런 상태라면 돈 문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2) 선교사는 ‘믿음’과 ‘설계’를 함께 가져야 한다

믿음은 무계획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맡겨진 자원을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선교사의 재정에도 흐름 설계가 필요합니다.

-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 후원 외의 건강한 보완 통로가 있는가
- 지출은 어디서 새고 있는가
- 긴급 상황 대비가 있는가
- 사역과 생계의 균형은 어떻게 잡는가
- 가정의 필요와 사역의 필요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런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청지기적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3) 비교는 재정 영성을 무너뜨린다

선교 현장에서는 재정 비교가 은근히 큽니다.

- 누구는 후원이 안정적이고
- 누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고
- 누구는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 누구는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교가 심해지면 감사보다 결핍 의식이 커지고,

하나님보다 타인의 조건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청지기적 상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길이 있다
- 나는 다른 사람의 흐름이 아니라 내 맡겨진 흐름에 충성한다
- 적음도 많음도 모두 청지기 훈련의 자리다

4) 회피를 끊는 것이 첫 순종일 수 있다

선교사는 영적 긴장과 실제 생존 압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회피가 생깁니다.

- 가계부를 안 본다
- 후원 현황을 정리하지 않는다
- 필요한 대화를 미룬다
- 사역 지속 가능성 점검을 피한다
- 일터 모델을 고민하는 것을 세속적이라 여긴다

하지만 회피는 문제를 신성하게 만들지 않고, 더 흐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가장 영적인 행동이 아주 현실적인 재정 점검표를 펼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5) 1cm 순종이 장기 선교의 문을 연다

큰 돌파는 중요하지만, 실제 변화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에게 1cm 순종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 오늘 재정 현황을 정확히 적어 보기
- 후원자에게 감사 소식을 정직하게 전하기
- 사역과 연결 가능한 작은 일터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기
- 돈에 대한 두려움을 기도로 언어화하기
- 지출 하나를 말씀 기준으로 다시 보기
- 비교를 멈추고 오늘 받은 공급을 기록하기

작지만 반복되는 순종이 점차 새로운 재정 흐름과 정신 구조를 만듭니다.

11. Stewardship OS Canvas 해석

1) 반응 패턴

먼저 돈 앞에서 내 자동 반응을 봅니다.

질문 예시:

- 재정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긴장하는가
- 누군가의 풍요를 보면 비교하는가
- 부족함을 느끼면 회피하는가
- 결정을 미루는가
- 충동적이 되는가
- 지나치게 움츠러드는가

이 단계는 정죄가 아니라 자기 인식입니다.

2) 전환 기도

그다음 자동 반응을 청지기 상태로 전환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시:

“주님, 저는 돈 문제 앞에서 자주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제 생존의 주인처럼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공급자이심을 다시 신뢰하게 하시고,

비교와 회피 대신 충성과 질서를 선택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추상적 기도가 아니라

내 반응 패턴을 정확히 붙잡고 바꾸는 기도입니다.

3) 1cm 순종

전환은 반드시 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시:

- 오늘 통장 흐름 확인하기
- 재정 문서 하나 정리하기
- 후원 현황 점검하기
- 일터 아이디어 하나 메모하기

- 지출 한 항목 조정하기
- 배우자나 동역자와 재정 대화 시작하기

작지만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4) 흐름 설계

마지막으로 반복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예시:

- 매주 1회 재정 점검
- 월 1회 후원 소통
- 분기별 사역 지속 가능성 검토
- 사역과 연결되는 소규모 일터 실험
- 가정 재정과 사역 재정의 구분
- 감사 기록과 공급 기록 루틴 만들기

이 단계가 있어야 재정 훈련이 일시적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 선교 현장 예시

사례 1. 후원이 줄어들 때 공포가 커지는 선교사

반응 패턴

“이제 끝나는 것 아닐까?”라는 공포가 자동으로 올라온다.

전환 기도

“주님, 제 마음이 공급의 통로를 주님보다 크게 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통로일 뿐, 공급자는 주님이심을 다시 붙드립니다.”

1cm 순종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소통을 미루지 않는다.

흐름 설계

정기 후원 소통 체계와 비상 재정 계획을 세운다.

사례 2. 다른 선교사와 비교하며 위축되는 선교사

반응 패턴



남의 사역 규모와 재정 안정성을 보며 마음이 꺾인다.

전환 기도

“주님, 비교로 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남의 몫이 아니라 제게 맡기신 몫에 충성하게 하소서.”

1cm 순종

오늘 받은 공급 세 가지를 기록한다.

흐름 설계

비교를 자극하는 환경을 줄이고, 감사 기록 루틴을 만든다.

사례 3. 일터 선교나 자립 모델을 죄책감으로 피하는 선교사

반응 패턴

“돈 버는 일은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막연한 죄책감이 있다.

전환 기도

“주님, 일이 사역의 적이 아니라 청지기적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소서.

탐욕이 아니라 책임과 섬김의 마음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1cm 순종

사역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작은 일터 아이디어 3개를 적는다.

흐름 설계

사역과 연결 가능한 자립 가능성을 시험하는 파일럿 구조를 만든다.

13. 선교사와 사역자를 위한 실제 적용점 정리

첫째

재정 문제를 단순히 액수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돈 앞에서 드러나는 내면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둘째

두려움, 비교, 회피는 영적이지 않은 습관이 아니라
새롭게 훈련되어야 할 내면 OS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재정 흐름을 설계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넷째

작은 순종 하나가 재정의 막힌 흐름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 사역을 위해서는 기적만 기다리지 말고,
반복 가능한 청지기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학위과정 운영 규정

하베스트 대학교는 학점 은행제로 운영된다.

- (1) 학생은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다.
- (2) 학생은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졸업할 수 있다.

행정비

- (1) 입학금은 5만 원으로 한다
- (2)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등 제반 서류 발급 비용은 2만 원으로 한다.
- (3) 선교지의 학생일 때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이 정한다.

학비

- (1) 1학점당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학생 정원

- (1) 대학원장과 담당 교수의 결정으로 학생 1인 이상으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입학 서류 제출처

하베스트 대학교 교무처 harvestuniversity365@gmail.com

입학금

입학금 5만원을 접수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환불하지 않는다.
위조문서가 발견될 경우 등록 학생은 즉시 퇴학 조치된다.
아울러 학위 증명서가 무효 된다.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 석사 (M. A in InterCultural Arts)

문화예술학 박사(Ph.D in InterCultural Arts)

석사, 박사 통합 과정

1. 전공필수

교회음악학 (김부식 박사), 문화인류학 (김부식 박사)
문화예술 경영론 (김부식 박사), 캘리그래피 (김부식 박사)
힐링발성법 (정찬혜 박사), 아동문학 (김성구 박사)



2. 전공 선택

작곡법 (김부식 박사), 반주법 (김부식 박사)
기초성악 (김미현 박사), 합창지휘법 (김부식 박사)
시낭송 (남기선 교수), 수묵화 (김부식 박사)
성전꽃꽂이 (이현옥 교수),
시, 수필 강좌 (김부식 교수, 이진영 교수, 김성구 교수, 배인수 교수)
사진학 (정상진 교수), 한국장단(북,장구,뿔과리/사물놀이) (김부식 박사)
캘리그래피 (김부식 박사), 난타(타법과 설계) (김부식 박사)

3. 전공별 논문

- 1) 음악 전공 음악회
- 2) 미술 전공 전시회
- 3) 문학 전공 출판

2026년 2학기 강좌 안내
하베스트 문화예술대학원

원장 김부식 박사
석,박사 및 일반과정

4월 21일 ~ 6월 2일 (7주간)
매주 화요일 8시 (한국시간 기준)

한국기독교 시와 신춘문에 작품분석 (김부식 교수)
시낭송과 성시 (홍성례 교수)
교회음악학 (이국병 교수)
캘리그래피 (김부식 교수)
찬송성악 (최헌정 교수)
푸드아트테라피(서금순 교수)

(영상 강의-교양)
김중구교수 - 구원론, 야고보서
나주아교수 - 모세오경, 바울의 종말론
이성상교수 - 품성리더십, 기독교윤리학, 논문작성법



하베스트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학 문학석사(M.A in Missiology), 선교학박사(D. Miss),
철학박사(Ph.D in Missiology) 및 통합과정

1. 전공 필수

- * 선교학 개론 (김현진 박사),
- * 선교 신학 (김현진 박사)
- * 선교의 역사 (김현진 박사),
- * 선교 문화인류학 (김현진 박사)
- * 선교적교회론 (김현진 박사),
- * 성령과 선교 (김현진 박사)
- * 공동체와 선교 (김현진 박사),
- * 다문화 선교 (김현진 박사)



2. 전공 선택

- * 전도학 (이성상 박사),
- * 미디어와 선교 (조창식 박사)
- * 디지털 시대 AI와 선교 (안정위 박사)
- * 모라비안 형제단의 세계선교 (유정남 박사)
- * 선 의 경 교 (김규동 박사)

3. 논문 - 석사 과정 6학점, 박사 과정 10학점

4. 교양 필수

박사 과정 학생은 3과목(6학점) 이상의 교양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

33기 공동체 비전스쿨

"공동체는 교회와 선교의 본질입니다."

- 내용
- 공동체 교회론 ● 공동체 운동의 교회사적 조명
 - 공동체 성령론 ● 공동체 사회론 ● 공동체와 선교
 - 세계의 기독교공동체의 현장 영상시청
 - 공동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일시 : 2026년 4월 2일 - 5월 28일, 총 9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강사 : 김현진 교수(태안 사범의공동체 원장, 평택대학교 교수, Ph. D.)

교재 : 공동체 신학(김현진, 예영 커뮤니케이션)

대상 : 평신도, 선교사, 신학생, 목회자

방식 : 온라인(Zoom) 강의

회비 : 20만원(농협 356-0101-3975-13, 예금주 : 김현진)

신청 : 회비를 계좌로 입금한 후 "큐알 코드"로 등록 신청

신청마감 : 3월 31일(화)

신청문의 : 010-8488-8177, 카톡 ID: hjkim212

등록 신청



주최 :



공동체 신학원

(Institute for Community Theology)

공동체 비전스쿨은 다음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 *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 * 개인주의적 기독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 온전한 영성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 *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이 통합되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 * 공동체 삶을 통한 선교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수료생 소감문

"공동체 비전스쿨을 통해 공동체 운동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 남은 생애에 공동체 운동에 헌신할 것이며, 은퇴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박은조 목사, 분당 샘물교회 원로)

"공동체 비전스쿨을 통하여 기성교회를 진정한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임동혁 목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신학 이론과 함께 세계의 기독교 공동체 현장을 보여주는 강의 구성이 너무 유익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본주의에 물든 세상에서 사역하는 평신도,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공동체 비전스쿨은 필수 코스이다."

(이형로 목사, 만리현성결교회 원로)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시대와 문화를 넘어 성경이 가르치고 제시하는 통전적, 총체적 선교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선교적 전략을 배울 수 있었다. 귀한 강의와 나눔이 너무나 값진 지침이 되었다."

(김창훈 선교사, 캄보디아)

"공동체 비전스쿨은 그 어느 과정보다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했으며 감동과 기쁨, 고민과 생각이 많았던 과정이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이지선 원장, 서울재활병원)

"김현진 교수님이 탐방한 세계 15개의 기독교 공동체의 실재를 배울 수 있었고, 공동체의 운영 및 공동체의 신학적 조명이 감명 깊었다.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동체 비전스쿨을 적극 추천한다."

(김재민 교수, 경일대학교)

안정위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전산정보처장

정보관리역량의 중요성

1 정보환경의 변화

AI 시대의 본질은 “정보 부족 → 정보 과잉”으로의 전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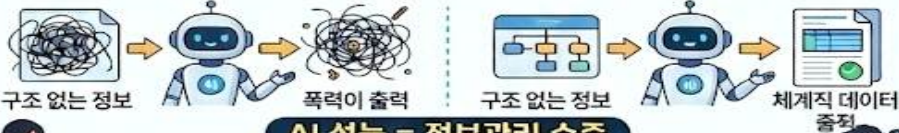
← 결론: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 선택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2 정보관리역량의 정의 단순 정리가 아닌 “관리 시스템”입니다.



3 AI 시대에서의 역할

AI는 정보를 “잘 처리”하지만 정보를 “잘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AI 성능 = 정보관리 수준

정보관리 잘하는 사람 → AI 활용 교수 VS 정보관리 못하는 사람 → AI 의존자

4 실천 전략 정보관리역량은 “습관”입니다.

Basic Routine

- 매일 : 기록 (Capture)
- 매주 : 정리 (Organize)
- 매일 : 점검 (Review)

Action Points

- 한 곳에 모으기
- 작은 단위로 나누기
- 반복적으로 다듬기

Core: 정보관리는 계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종 한 줄 정리

AI 시대의 승부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정보를 얼마나 구조화하고 활용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사역지원기술연구소 #안정위교수

창의력 개발 과정 5단계

사역지원기술연구소 안정위교수



2026년 봄, 라마단과 사순절이 겹친 시대에 던지는 무거운 화두



김종일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아신대학교 교수

비움의 미학, 그 잿더미 위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갈망

2026년의 봄, 인류는 지금 거대한 ‘절제’의 강을 건너고 있다. 지구촌 한편에서는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무슬림들의 라마단(Ramadan)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보라색 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독교인들의 사순절(Lent)이 흐른다. 이렇듯, 인간의 위장은 비어 가지만, 그 공간을 채우려는 영혼의 울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왜 인류는 스스로 고통 속에 밀어 넣는가?

인간의 본능은 채움과 쾌락을 갈망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류의 성스러운 역사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비움’과 ‘고통’을 배치했다. 이슬람력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은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훈련이 아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에게 인류의 지침서인 ‘꾸란’이 처음 계시된 축복의 달이다. 이는 고행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한편, 기독교의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은 예수 그

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겪은 금식과 시험을 체득하는 시간이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 등 인간의 죄성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룩한 인내’를 상징한다. 두 종교 모두 육체의 소리를 잠재우고 영혼의 귀를 열기 위해 ‘단식’과 ‘절제’라는 도구를 선택한 것이다.

꾸란의 명령과 성경의 재(Ash): 참회의 준엄한 가르침

무슬림들에게 라마단 단식은 ‘다섯 가지 기둥(실천 덕목)’ 중 하나로, 거부할 수 없는 신앙적 의무다. 권위 있는 하디스인 ‘싸히흐 무슬림’은 “라마단을 단식으로 보내는 자는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기록한다. 이는 단식의 목적이 욕망을 통제하여 영적 결백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기독교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은 인간의 유한함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이마에 얹어지는 ‘재’는 히브리어로 ‘에페르(Epher)’라 불리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참회의 상징이다. 욕은 재 가운데서 회개했고,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왕은 재 위에 앉아 통곡했다. 이 재는 우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일깨우는 동시에, 그 절망적인 재 위에서만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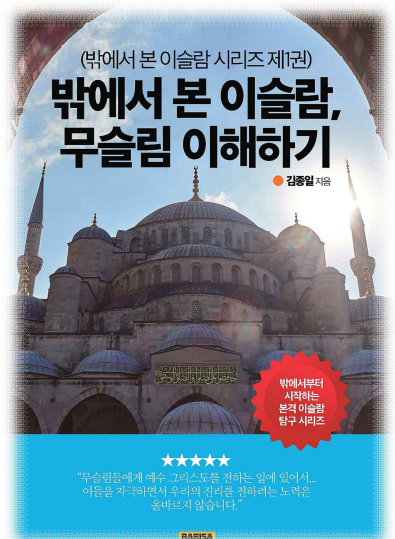
2026년, 종교의 민낯과 잃어버린 본질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종교의 모습은 때로 이 찬란한 정신을 무색하게 한다. 라마단 기간 이슬람권 대도시의 시장은 오히려 밤마다 열리는 성대한 파티로 식비 지출이 늘어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다. 사순절은 형식적인 교회력의 일부로 전락했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부패와 세습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지점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화점이었던 그 ‘진실한 고백’에 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죄를 대중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던 그 참회의 현상이 진정한 사순절의 풍경이다.

오직 은혜, 타버린 재 너머의 소망

오랜 시간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며 깨달은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라마단의 율법 아래 떨고 있는 영혼이나, 사순절의 경건함을 흉내 내는 메마른 신앙인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오만의 포기다.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은혜’다. 내가 굶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르셨던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머리에 얹어진 재는 차갑고 무겁지만, 그것이 내 삶의 교만을 태우고 남은 결과물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활의 아침 햇살이 비친다.

이번 사순절, 단순히 작은 취미를 끊는 ‘소소한 희생’에 도취하지 말자. 대신 우리 안의 ‘소돔’을 직시하고 재 위에 앉자. 진정한 회개는 눈물 몇 방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튼 ‘혁명’이어야 한다.



열방몰은 선교사 후원 및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연결한다는 비전하에 카카오톡 채널과 구글 플레이 앱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제공하며,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등 선교사 후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후원, 세계 복음화, 선교 기금 마련.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연결하는 선교적 쇼핑몰.

열방몰은 '쇼핑 선교사'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 후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공식 웹사이트: 5012mission.com

열방몰의 주요 특징 및 서비스

선교 후원 시스템

물품 구매를 통해 선교지 및 선교사를 후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선교 사역에 사용합니다.

다양한 카테고리

교회 용품을 비롯해 식품, 생활가전, 뷰티, 패션 등 일반 쇼핑몰과 유사한 폭넓은 상품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네트워크

성도들의 사업장을 소개하거나 교회 간 바자회 물품을 공유하는 등 크리스천 소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합니다.

공급사 모집

열방몰의 상품판매가
곧 선교입니다.

입점사 모집

소상공인 여러분!
선교 후원과 함께 성장하세요.

귀하의 매장을 성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하베스트 선교사님께

10년간 연금 보내드리기 프로젝트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으로 많은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며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세대가 선교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서는 파송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후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은 선교사 연금시스템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 연금 가입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산하에서 운영하는 "목회자·선교사 연금시스템"은 단순한 노후 준비를 넘어,

사명자들의 끝까지 흔들림 없는 사역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 연금 가입안내

교회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청빙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은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 사역을 마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연금 가입 방법

하베스트 연금회원 가입과 동시에 은퇴금 가입자가 됩니다.

가입 후에는 입금 시

'이름 + 은퇴금' (예: 이주만은퇴금)

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불입 내역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열방몰
둘러 보기

📍 은퇴연금 가입상담

주만장로 : 010-3418-9169

📢 지금 바로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을 통해 선교사님의 사역을 끝까지 동역해 주세요!

나는 부자인가? 거룩한 부자 체크리스트!

안용훈 목사
포항 물댄동산 교회
열방몰 이사장



I. “물질 중심의 부자”와 “가치 중심의 부자”

1. 물질 중심의 부자 - ()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

물질 중심의 부자는 돈 그 자체를 삶의 안전과 의미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끼고, ()이 없으면 불안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결국 돈 때문에 갈등하고, 영적인 결단을 주저하거나 놓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 대표 인물과 특징

1) 부자 청년

마 19:16-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 어리석은 부자눅 12:16-21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

3)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눅 16:19-31 “자색 옷과 고운 베풀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4) 나발

삼상 25장 “그 사람은 심히 부하여… 그러나 완고하고 악하며…”

🔍 공통 특징 요약

- ()이 삶의 의미와 안전의 기준이 된다.
-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을 우선한다.
- 이웃과 공동체를 외면하고 ()에만 집중한다.
-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이 많다.
- 재물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 깊어진다.

2. 가치 중심의 부자 - 하나님과 진리를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가치 중심의 부자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임을 압니다. 그들은 ()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재물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합니다.

▣ 대표 인물과 특징

1) 아리마대 요셉

(마 27:57-60)“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기 새 무덤에 넣고…”

2) 바나바

(행 4:36-37)“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 바르실래



삼하(17:27-29)“광야에서 주리고 곤하고 목말랐음이라.”

4) 보아스

(룻기 2~4장)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 공통 특징 요약

-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로 이해한다.
-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 데 기꺼이 사용한다.
- ()보다 하나님과 진리, 소명과 가치가 우선이다.
- 앎이 두렵지 않으며, 앎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로 여긴다.
- 재물 사용을 통해 오히려 영혼이 자유롭고 () 해진다.

3. 비교 정리 - 물질 중심 vs 가치 중심

| 구분 | 물질 중심의 부자 | 가치 중심의 부자 |
|-------|--------------------|-----------------------|
| 관점 | ()이 곧 인생의 목적과 의미 | ()은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 |
| 동기 | () 만족, 안락함, 지위 | 하나님 나라, 이웃 섬김, () 가치 |
| 태도 | 재물 때문에 ()하고 머뭇거림 | 재물보다 ()과 ()를 선택 |
| 결과 | 영적 (), 관계 단절, 불안 | 영적 (), 공동체 유익, 평안 |
| 대표 인물 | 부자 청년, 어리석은 부자, 나발 | 아리마대 요셉, 바나바, 보아스 |

4. 영적 교훈

💡 “너희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 6:24)

✓ 하나님은 부 자체를 ()라 하지 않으십니다.

! 문제는 그 부의 ()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 ()이 나의 신앙을 흔들다면 나는 이미 ‘물질 중심의 부자’입니다.
-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통로가 된다면 나는 ‘가치 중심의 부자’입니다.

5. 묵상 질문

1.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2. 내 재물 결정의 기준은 ‘이익’인가, 아니면 ‘가치’인가?
3.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더 큰 부를 맡기신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II. “거룩한 부자”와 “가난의 영에 잡힌 부자”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용했는가? 가 성경의 핵심 기준입니다.

1. 거룩한 부자 - 재물을 ‘()’로 사용하는 사람들

거룩한 부자는 자신의 부와 소유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과 이웃을 위한 사명임을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이며, 그 중심에는 “() 정신” 이 있습니다.



🔗 공통점:

-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임을 인식함.
- 재물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로 사용.
- ‘나눔’과 ‘헌신’이 삶의 기쁨이며, 물질을 통해 () 열매를 맺음.

2. 가난의 영에 잡힌 부자

- 재물을 ‘자기 자신’의 ()으로 삼는 사람들

‘가난의 영(poverty spirit)’은 단순히 돈이 없음이 아니라, ()이 있어도 끊임없이 결핍과 두려움, 탐욕에 사로잡힌 ()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며, ()을 통해 자신의 안전과 자존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물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 공통점:

- 재물이 자신의 ‘주’가 되었으며, ()보다 물질을 의지함.
- 이웃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자기만을 위해 축적.
- 겉으로는 ()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결핍된 삶.

3. 정리: 거룩한 부자 vs 가난의 영에 잡힌 부자

| 비교 항목 | 거룩한 부자 | 가난의 영에 잡힌 부자 |
|--------|-----------------------|---------------------------------------|
| 재물의 주인 | 하나님 (나는) | 나 자신 (나는) |
| 재물의 목적 | | |
| 태도 | 기쁨과 감사로 () | 두려움과 탐욕으로 () |
| 결과 | 영적 ()함과 하나님의 칭찬 | 영적 ()과 하나님의 심판 |
| 대표 인물 | 바르실래, 바나바, 욥, 요셉, 보아스 | 나발,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어리석은 부자, 부자 청년, 아나니아 |

4. 적용과 묵상

성경은 “부 자체”를 ()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를 ()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눅 12:21)

💡 우리의 재물이 나를 위해 쌓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부자’와 ‘가난의 영에 잡힌 부자’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Ⅲ. ‘부자냐? 가난하냐?’ 보다 “그 재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물질 중심의 부자”와 “가치 중심의 부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1. 물질 중심의 부자 - 재물이 삶의 ()이 된 사람

물질 중심의 부자는 돈 그 자체를 삶의 안전과 의미의 근거로 삼습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끼고, ()이 없으면 불안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결국 돈 때문에 갈등하고, 영적인 결단을 주저하거나 놓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 공통 특징 요약

- ()이 삶의 의미와 안전의 기준이 된다.
-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을 우선한다.
- 이웃과 공동체를 ()하고 자기 만족에만 집중한다.
-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은 불안하고 갈등이 많다.

- 재물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 결핍이 깊어진다.

2. 가치 중심의 부자 - 하나님과 ()를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가치 중심의 부자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임을 압니다. 그들은 ()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합니다. 재물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합니다.



🔍 공통 특징 요약

-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로 이해한다.
-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 데 기꺼이 사용한다.
- 재물보다 하나님과 진리, 소명과 가치가 ()이다.
- 앎이 두렵지 않으며, 앎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로 여긴다.
- 재물 사용을 통해 오히려 영혼이 자유롭고 ()해진다.

3. 비교 정리 - 물질 중심 vs 가치 중심

| 구분 | 물질 중심의 부자 | 가치 중심의 부자 |
|-------|--------------------|------------------------|
| 관점 | 재물이 곧 인생의 ()과 의미 | 재물은 가치 실현을 위한 () |
| 동기 | 자기 (), 안락함, 지위 | 하나님 나라, 이웃 (), 영원한 가치 |
| 태도 | 재물 때문에 ()하고 머뭇거림 | 재물보다 ()과 진리를 선택 |
| 결과 | 영적 빈곤, () 단절, 불안 | 영적 풍요, 공동체 (), 평안 |
| 대표 인물 | 부자 청년, 어리석은 부자, 나발 | 아리마대 요셉, 바나바, 보아스 |

4. 영적 교훈

💡 “너희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 6:24)

✓ 하나님은 부 자체를 죄라 하지 않으십니다.

! 문제는 그 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 재물이 나의 신앙을 흔들다면 나는 이미 ‘물질 ()의 부자’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통로가 된다면 나는 ‘가치 ()의 부자’입니다.

5. 묵상 질문

1.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2. 내 재물 결정의 기준은 ‘이익’인가, 아니면 ‘가치’인가?
3.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더 큰 부를 맡기신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IV. “거룩한 부자 vs 가난의 영”

100문항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

“나는 돈을 다스리는 자인가?, 돈에 다스림받는 자인가?” 를 깊이 점검하는 영적 거울입니다.



채점 방법 : 각 문항마다 0~5점 (0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
() 안에 체크해 주세요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보통이다 | 보통 이하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거룩한 부자 자격 100문항 체크리스트

□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 A. 재물관의 뿌리 -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1~20)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1. 나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 (시 24:1)
2. 내 재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마 25:14-30)
3. 돈을 벌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우선한다. (마 6:33)
4. 돈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것이 더 두렵다. (막 8:36)
5. 재물이 없어도 내 가치가 줄지 않는다고 믿는다. (빌 4:12)
6. 재물을 얻는 능력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는다. (신 8:18)
7. 재물은 내 소유가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다. (고전 4:2)
8.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자주 생각한다.
9.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약 2:2-4)
10. 재물이 많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신 8:12-14)
11. 재물이 적어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마 6:26)
12. 돈이 나의 인생 목표를 결정하지 못한다. (잠 11:28)
13. 재물이 없어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빌 4:11)

14. 나는 부를 추구하기보다 사명을 추구한다. (마 6:19-21)
15.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빌 3:8)
16. 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묻고 의지한다. (눅 12:48)
17. 돈을 벌 때 ‘하나님의 방식’과 ‘정직’을 지킨다. (잠 11:1)
18. 돈을 사용할 때 ‘기도’를 통해 방향을 구한다. (잠 3:5-6)
19. 돈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다.
20. 재물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다.

□ B. 소유와 사용 - 재물을 흘려보내는가? (21~40)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21. 나는 돈을 쌓아두기보다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한다. (잠 11:24)
22. 주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재물을 드린다. (고후 9:7)
23. 재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둔다. (마 6:33)
24. 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
25. 기도 중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즉시 헌신한다.
26. 이웃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나누려 한다. (잠 19:17)
27. 구제나 선교에 헌금하는 것이 기쁨이다. (행 20:35)
28. 내 재물로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소망한다.
29. 재물을 사용하며 ‘하늘의 상급’을 의식한다. (마 19:21)
30. 재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행 4:36-37)
31.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약 2:15-17)
32. 어려운 이웃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긴다.

33. 선교사나 복음 사역자를 섬기는 일을 즐거워한다. (삼하 17:27-29)
34. 교회 안에서 재정적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35. 돈을 사용할 때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한다.
36. 나의 재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37. 돈을 나눌 때 손해가 아닌 '투자'라고 생각한다. (눅 6:38)
38. 재물이 많아지면 나눔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믿는다.
39.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 성장에 필수라고 생각한다.
40.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기도한다.

💡 C. 재물과 마음 - 나는 돈의 주인인가? (41~60)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41. 돈이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 (마 6:24)
42.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43. 돈으로 인간관계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
44. 돈이 많아져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안다.
45. 재물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한다.
46. 재물로 인한 경쟁심보다 나눔의 마음이 크다.
47.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음을 믿는다.
48. 재물로 권력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49. 재물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 적이 없다.
50. 돈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51. 재물이 많아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 52. 재물이 없어도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 53. 재물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 54.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 하지 않는다.
- 55. 돈이 없을 때도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살전 5:18)
- 56. 재물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걱정한다.
- 57. 돈이 많은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는다.
- 58. 재물이 나를 속박하지 않고 내가 재물을 다스린다.
- 59. 돈 때문에 가족이나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다.
- 60. 돈을 사용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자유롭다.

☞ D. 가치와 소명 - 무엇을 위해 버는가? (61~80)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 61. 돈을 버는 이유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다.
- 62. 재정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세운다.
- 63. 수입을 계획할 때 먼저 “헌금”을 고려한다.
- 64. 직업 선택 시 연봉보다 사명을 먼저 본다.
- 65. 재물을 통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기도한다.
- 66. 돈이 많아질수록 책임감도 커진다고 느낀다. (눅 12:48)
- 67. 재물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 한다.
- 68. 재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세운다.
- 69. 돈을 사용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다.
- 70. 재물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71. 내가 죽은 후에도 재물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계획한다.
72. 돈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고 싶다.
73. 재정 계획에 ‘하늘나라의 가치’를 반영한다.
74. 재물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선한다.
75. 돈을 쓸 때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묻는다.
76.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소명 수행의 연장선’이다.
77. 내가 가진 재물이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이 되기를 원한다.
78. 돈을 벌어 세상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다.
79. 재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품고 있다.
80. 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꿈꾼다. (고전 10:31)

🔥 E. 최종 태도 - 나는 어떤 부자인가? (81~100)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81. 재물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다.
82. 돈보다 기도의 응답을 더 신뢰한다.
83.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재물을 포기할 수 있다.
84.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
85. 재물 사용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86. 돈보다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다. (요 6:35)
87.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요를 느낀다.
88.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안다.
89. 재물보다 ‘영혼 한 사람의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긴다.

90. 돈보다 ‘말씀 한 구절’이 더 큰 힘을 준다.
91.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 기도한다.
92. 재물이 없더라도 나눔을 멈추지 않는다.
93. 재물이 있어도 탐욕을 경계한다.
94. 돈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한다.
95. 재물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꿈꾼다.
96. 재물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97. 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한다.
98. 돈보다 더 큰 부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한다. (마 19:21)
99.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100.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시 23:1)

V. 「부자로 쓰임받기 위한 성품별 50문항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돈을 잘 다루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

즉 “나는 하나님이 재물을 맡길 수 있는 그릇인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부자로 쓰임받기 위한 성품별 50문항 체크리스트



-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채점 방법:

- 0점 = 전혀 아니다
- 1점 = 아니다
- 2점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점 = 보통이다
- 4점 = 그렇다
- 5점 = 매우 그렇다

A.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 -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품”

□ 창 12:1-4 / 히 11:8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 번호 | 질문 | 핵심 성품 | 체크 점수 |
|----|-----------------------------------|-------|-------|
| 1 | 재정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 | 믿음 | |
| 2 |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한다. | 순종 | |
| 3 | 재정의 결정에서 기도와 말씀을 먼저 구한다. | 믿음 | |
| 4 | 재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다. | 순종 | |
| 5 | 손해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 | 믿음 | |
| 6 |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가진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 | 순종 | |
| 7 | 재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한다. | 믿음 | |
| 8 | 돈보다 약속을 붙드는 신뢰가 있다. | 믿음 | |
| 9 | 돈을 벌 기회보다 사명을 이루는 기회를 먼저 찾는다. | 순종 | |
| 10 | 재정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다. | 믿음 | |

B. 지혜와 절제 (요셉) - “재물을 다스리는 성품”

□ 창 41:33-40 / 잠 21:5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 번호 | 질문 | 핵심 성품 | 체크 점수 |
|----|---------------------------------|----------|----------|
| 11 | 나는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한다. | 지혜 | |
| 12 | 재정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 지혜 | |
| 13 | 필요 없는 소비를 절제할 수 있다. | 절제 | |
| 14 | 재정이 풍족할 때에도 절제된 생활을 한다. | 절제 | |
| 15 | 재물을 미래의 사명과 비전에 맞게 준비한다. | 지혜 | |
| 16 |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 | 지혜 | |
| 17 | 감정이나 충동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 절제 | |
| 18 | 지출보다 나눔과 투자를 우선한다. | 지혜 | |
| 19 | 재정적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배움으로 삼는다. | 지혜 | |
| 20 | 재정 관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 | 지혜 | |

C. 긍휼과 책임 (보아스) - “약자를 품는 성품”

□ 룻 2:12 / 미 6:8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 번호 | 질문 | 핵심 성품 | 체크 점수 |
|----|--------------------------|----------|----------|
| 21 |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 | 긍휼 | |
| 22 |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 긍휼 | |

| | | | |
|----|---------------------------------|----|--|
| 23 | 돈이 생기면 돕고 싶은 사람을 먼저 떠올린다. | 긍휼 | |
| 24 | 재물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싶다. | 책임 | |
| 25 | 나눔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믿는다. | 책임 | |
| 26 | 약자를 돕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 긍휼 | |
| 27 |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경제적으로 동참한 경험이 있다. | 책임 | |
| 28 | 재물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진다. | 책임 | |
| 29 | 내 재물이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 책임 | |
| 30 | 이익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 | 긍휼 | |

D. 충성과 섬김 (바르실래) - “자기보다 사명을 높이는 성품”

□ 삼하 17:27-29 / 막 10:45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 번호 | 질문 | 핵심 성품 | 체크 점수 |
|----|------------------------------------|-------|-------|
| 31 |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물질로 섬긴 적이 있다. | 섬김 | |
| 32 | 나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진 이를 재정으로 돕고 싶다. | 충성 | |
| 33 | 다른 사람의 사역이 성공하는 것을 기뻐한다. | 충성 | |
| 34 | 재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사명이라 믿는다. | 섬김 | |
| 35 |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기쁘다. | 섬김 | |
| 36 |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섬길 수 있다. | 겸손 | |
| 37 |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 충성 | |
| 38 | 헌신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섬김 | |
| 39 |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참여한다. | 충성 | |
| 40 | 섬김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섬김 | |

E. 헌신과 담대함 (아리마대 요셉) - “복음을 위한 성품”

☐ 마 27:57-60 / 눅 9:23

| | | | | | |
|--------|-------|-------|------------|-------|--------|
| 5 () | 4 () | 3 () | 2 () | 1 () | 0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 번호 | 질문 | 핵심 성품 | 체크 점수 |
|----|-------------------------------|-------|-------|
| 41 | 복음을 위해 큰 재정을 내놓을 각오가 있다. | 헌신 | |
| 42 |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 수 있다. | 헌신 | |
| 43 | 돈보다 복음 전파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 | 담대함 | |
| 44 | 재물이 있어도 신앙을 숨기지 않는다. | 담대함 | |
| 45 | 복음을 위해 사회적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 헌신 | |
| 46 |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 담대함 | |
| 47 | 재물 사용이 곧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 헌신 | |
| 48 | 하나님이 원하시면 재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 헌신 | |
| 49 | 재물이 하나님께 쓰이는 순간을 기대한다. | 담대함 | |
| 50 |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복음을 위한 것임을 안다. | 헌신 | |

VI. 결론 -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이 아니라 “성품”

💡 하나님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눅 16:10)

☐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시려 함이라.”

(고후 9:11)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박일승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는 전 세계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가능하며, 이는 또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가능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지금 여기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역사 가운데 실현해나가는 자로서의 삶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기반한 현재성 그리고 일상성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시온의대로교육원에서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마지막 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래의 리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 이스라엘 아카데미' 심화교육 안내

Zion Highway Israel Academy **히브리어, 팜**

시온의대로교육원 안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기초하며, 언약과 하나님 나라 완성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영광』을 주교재로 하나님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보며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본교육과, 다양한 주제의 심화교육, 하브루타 방식의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리더십 과정을 통한 리더교육 등을 통해 '추수하는 일꾼'(마 9:36)을 세우는 사역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이스라엘 아카데미 '심화교육' 안내



시온의대로교육원 대표 박일승 목사(교육학 박사)
저자 직강 & 조별 토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영광』 6주 기본 과정을 통해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담는 그릇이자, 성경의 내용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공부했다면, 심화 과정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드러내고자 하는 성경의 더 큰 주제들에 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기본교육의 개념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절기에 드러난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희년에 나타난 복음, 이스라엘 땅에 관한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와 반유대주의 이해,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성전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5주 간의 아카데미를 위해 시간을 떼어놓으시고 기회를 사십시오. 그 열매는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주 동안의 스터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주차: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 ☆ 2주차: 여호와와의 절기
- ☆ 3주차: 희년과 복음
- ☆ 4주차: 이스라엘 산들 누구의 땅인가?
- ☆ 5주차: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전 이야기

교육 일정

일시 : 2026.4.4(토) ~ 5.2(토) 매주 토요일 10:30 ~ 12:30 (총 5회)
장소 : 시온의대로교육원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736호)
인원 : 12명 한정 (선착순)
등록비 : 5만원
등록 계좌 : SC제일은행 378-20-225376 마동숙
등록 문의 : 010-2500-4414 마동숙
* 입금 후 문자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Come & Study!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저자: 존 그레이



북 리뷰: 어미선(01. 2026)

어미선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가정성장 대학원

미국 하베스트 대학교 이사

1. "우리는 왜 그토록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는가?"

결혼 36년,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긴 시간 동안 저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편이라는 존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처럼 대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해서 맺어진 부부였지만,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갈등은 늘 평행선을 달렸고 그 끝은 깊은 자괴감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밖에 반응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만난 후, 저는 비로소 36년 만에 남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언어'와 '본성'을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화성에서, 여자가 금성에서 왔다는 이 책의 은유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망각하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와 리더들에게 가정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자 안식처입니다. 이 책은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기 전, 아니 이성과 연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읽고 체득해야

할 '관계의 교과서'입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남녀의 핵심 차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번호 | 항목 | 화성인 (남자/남편) | 금성인 (여자/아내) |
|----|---------|--|---|
| 1 | 심리적 가치 |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 업적 을 통해 성취감을 느낌. | 타인과의 관계, 대화 와 공감 을 통해 행복을 느낌. |
| 2 | 스트레스 해결 |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 침묵하며 문제를 해결함.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 하며 감정을 발산함. |
| 3 | 사랑의 언어 |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함. |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관심 과 이해 를 갈망함. |
| 4 | 대화의 목적 | 정보를 전달하고 해결책 을 제시하기 위해 대화함. | 감정을 공유하고 정서적 연결 을 맺기 위해 대화함. |
| 5 | 사고의 방식 |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직선적/분석적 사고. | 여러 일을 동시에 느끼고 연결하는 통합적/직관적 사고. |
| 6 | 갈등 시 태도 | 비판 받는다고 느끼면 공격 하거나 회피 함. | 무관심하다고 느끼면 방어적 이 되거나 감정이 폭발함. |
| 7 | 점수 산정 | 큰 선물이나 큰 성공 하나에 높은 점수 를 부여함. | 작은 배려, 사소한 선물 하나에도 똑같이 1점 을 부여함. |

남녀 차이의 핵심 7가지 비교

존 그레이가 제시하고 성경적 원리로 재해석할 수 있는 남녀의 결정적 차이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선교적 삶을 위한 적용 - "차이는 틀림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다"

이 책을 덮으며 저는 36년간의 갈등이 결코 남편의 악의나 저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특히 사역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크리스천 리더와 선교사님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적용 점을 제안하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해결사'의 옷을 벗고 '공감자'의 옷을 입으십시오.

남편 사역자들은 아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즉각적인 조언(해결책)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아내는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자신과 닿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한마디가 백 가지 전략보다 힘이 셉니다.

둘째, '동굴'을 존중하고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아내 사역자들은 남편이 입을 닫고 혼자 있으려 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회복하는 중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억지로 동굴 밖으로 끌어내려 하기보다, 그가 평안히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셋째, 서로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의 언어를 공부하듯, 배우자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서로를 보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차이를 인정할 때, 가정은 비로소 사역을 방해하는 짐이 아니라 사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36년 전, 제가 이 원리를 알았다라면 우리 가정이 누렸을 평화는 얼마나 더 컸을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남녀 관계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다양성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화해의 도구'입니다. 모든 리더와 선교사들이 이 책을 통해 '사랑의 기술'을 익혀, 건강한 가정 위에서 견고한 사역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고, 상대의 다름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됩니다."





하베스트대학교

Harvest University

하베스트대학교(Harvest University)는 선교 중심 신학 교육기관으로, 선교사와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국제 신학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인가, AATA 정회원, 한국·일본·제주 등 여러 캠퍼스를 운영하며 선교학·신학·목회학 전 분야의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제공합니다.

1. 하베스트대학교 정체성

하베스트대학교는 선교사 리더십 양성을 핵심 사명으로 하는 국제 신학교입니다.

설립 목적: “선교사를 훈련하는 선교사(선교 리더)” 양성

설립 연도: 2008년

본부: 미국 캘리포니아

인증: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교육국(California Education Code 94874(e)) 인준

AATA(Asia Africa Theological Association) 정회원

운영 기관: 하베스트국제사역원(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이 학교는 단순한 신학교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한 영성·품성·전문성을 갖춘 지도자 양성소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2. 캠퍼스 및 운영 형태

하베스트대학교는 여러 지역에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미국 본교(캘리포니아), 한국 캠퍼스, 일본 도쿄 캠퍼스, 제주 캠퍼스

온라인 캠퍼스 (Zoom·온라인 강의 중심)

교육 방식은 온라인 + 현장교육을 병행합니다.

3. 학위 과정(학사-석사-박사)

하베스트대학교는 종교학·신학·선교학 분야의 정규 학위를 제공합니다.

● 학부 과정

신학사(B.Th.), 선교학사(B.A. in Missiology)

● 석사 과정

문학석사(M.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 박사 과정

목회학박사(D.Min.), 선교학박사(D.Miss.), 신학박사(Th.D.)

철학박사(Ph.D. in Missiology / InterCultural Arts / Family Counseling)

특히 선교학 박사(D.Miss.)와 선교학 Ph.D.는 한국 신학교들에서도 드문 전



문 과정입니다.

4. 교육 철학: 영성·품성·전문성

하베스트대학교는 세 가지 핵심 축을 강조합니다.

영성(Spirituality): 성령 중심, 기도 중심의 선교

품성(Character): 선교사의 인격·가정·관계 회복

전문성(Competency): 실제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전략·언어·문화 연구
이 철학은 학교 로고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5. 선교 중심 교육의 특징

하베스트대학교는 일반 신학교와 달리 선교사 재교육·현장 중심 훈련에 강합니다.

● 1) 선교사 연장교육

선교사 영성 회복

선교사 가정 회복(부부·가정 상담)



선교지 스트레스·소진 예방

● 2) 지역연구 & 선교전략 개발

문화인류학

종교 연구

지역별 선교 전략 수립

● 3) 선교 사관학교(Mission Academy)

각 나라 선교지에 세워지는 현장형 훈련 기관

● 4) 선교 정보 제공

선교 현장의 최신 정보·도구·전략을 제공

6. 교수진 특징

실제 선교지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 출신 교수

선교학·신학·문화 연구 전문가

“선교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교육 철학으로 강조



7. 하베스트대학교의 신학적 성향

복음주의(Evangelical), 성령 사역 강조, 선교 중심 실천신학
교단을 초월한 연합 선교 지향

8. 어떤 사람이 하베스트대학교에 적합한가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이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이며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

목회자 중 선교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사람

선교 리더십(선교사 훈련·선교 전략)을 배우고 싶은 사람

🌐 실제 사역 중심의 교육

하베스트대학교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 사역 훈련을 제공합니다.

선교사 연장교육원 운영

태국 치앙마이 선교센터 운영

세계선교 컨퍼런스 개최

선교사 가정·영성 회복 프로그램

문화·예술·상담 등 다문화 사역 훈련

이러한 프로그램은 선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 선교사 지원 시스템: “하베스트 연금”

하베스트국제사역원은 선교사들의 노후와 사역 지속을 위해 선교사 연금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선교사 은퇴금 적립



하베스트 사업 수익을 통한 연금 지원

선교사 회복 컨퍼런스 후원

열방몰(All Nations Mall) 운영 수익 전액 선교사 지원

하베스트는 “선교사의 내일을 지키는 사역”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 하베스트대학교가 선택받는 이유

미국 주정부 교육부 정식 인가 + 국제 신학협의회 정회원

선교 중심의 전문 학위 과정

온라인·현장 병행 교육

선교사·목회자 중심의 실천적 커리큘럼

글로벌 캠퍼스 네트워크

선교사 연금 시스템을 통한 실제적 지원

하베스트대학교는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가장 실천적인 신학 교육기관입니다.





Final Spring Welcome Event

봄은 왔는데, 몸은 아직 겨울...

UP TO 40% OFF / 26. 03. 31 까지



COUPON
3,000원



부활

불꽃 신재성

하늘이 숨을 멈추고
땅이 숨을 죽였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네
그러나, 끝이 아니었네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 여겨
고개를 떨구며 돌아서려 했네
조용히 물러나려 했네
가슴에 묻으려 했네

그러나, 아니었네
하늘이 숨을 쉬고
땅이 기뻐 외쳤네

예수, 다시 사셨도다!

HARVEST JOURNAL

하베스트 학술지 편집 위원

부편집장 김규동 박사

편집위원 조동욱 박사

김재수 박사

최하영 박사

김해규 박사

유정남 박사

김종일 박사

손승호 박사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HARVEST TIMES

2026년 4월 1일 제19호

발행인 이성상 박사

편집인 나주아 박사

